

東大新聞

우치한 이가 지혜로운 이를
이기러할때 거침은 말 포악
한 말 내세우나니 만일 언저나
이거러 허거든 마땅히 철묵으로 대하라.

(法句經·法華經 175절)

발행처	인간개발연구소	인간개발연구소	인간개발연구소	인간개발연구소
편집장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발행인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7-8577)			
전화	FAX (02)279-1270			
팩스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인쇄	인쇄			

제 1072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1년(단기4324년)4월17일(수요일) 【1】

정전 피해 속출... 시설 보완 시급

정전 29시간... 강의 중단·전산처리 지연 초래 학내복지 기본시설 과감한 투자 요구돼

지난 2일 변압기 고장으로 29시간 동안 정전이 나가 학내에 암흑천지를 이뤘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오랫동안 정전이 계속됨에 따라 수업휴강 등 피해가 속출해 학내 복지 시설에 대한 학내 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내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변압기 최대용량 초과로 인해 지난 2일 변압기가 폭발, 단 29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발생해 도서관 열람실 단축, 수업휴강 등 피해를 입어 정전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날 81년 변압기 설치 후 해마다 증가하는 전기사용량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데다 지하 전선케이블도 20여 년이 지나 접지로 인한 정전이 잦아들 정도로 인한 피해와 낙후된 전기시설 보수에 대한 강구책이 전무해 학교측의 복지시설 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 등 전산시설 확충, 전자기 사용 등으로 교내 전기사용량이 7백kW까지 이르는데, 동국대에 설치된 변압기는 최대 6백kW만 수용할 수 있어 변압기 최대용량 초과

로 인한 정전사태를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오후 4시 동국대 변압기 폭발로 인해 다음날 오후 9시까지 29시간 동안 동국대를 제외한 교내 모든 건물에 정전사태는 지난해 지하 전선 케이블 접지로 인한 정전과는 달리 증가하는 전기사용량에 대응하는 변압기 설치 부재로 발생했는데, 이번 정전으로 지난 2·3일 도서관 열람시간이 오후 5시로 단축돼 2천여명의 학생이 일찍 귀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Lab 등 일부 수업 휴강, 급수마비로 인한 교내 식당 일부 식당의 판매, 전산처리 지연 등의 직·간접적 피해가 속출, 학생·교수 직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현재 동국대(이하 보일리)에 설치된 변압기는 2백kW 변압기 3대, 동국대전용 3백kW 변압기 1대로 교내 모든 건물의 전기사용량을 수용하고 있으나 최고 전기사용량인 7백kW에 1백kW 모자라는 전력으로 앞으로의 정전사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관계과는 "3백kW 변압기 3대를 구입, 전체 9백kW의 전력으로 교내 전기사용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낙후된 지하 전선케이블 공사를 포함, 총 6천9백만원의 예산을 학교당국에 신청하고 변압



김종식 전대협위원장 선출. 지난 10일부터 3일간 연세대에서 열린 제5기 전대협 총회에서 전대협위원장 선출과 민주연합토대구축 등의 중요안이 채택됐다. (관련기사 10면)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서울(20일)북한산-경주(19일)남산서

4·19혁명 31주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22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오는 20일 오전 본교 체육관 및 동국대 부속학교, 동문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일원에서 열린다.

이날 등산대회는 오전 9시 4·19기념탑에서 기념식을 갖고 이어 4·19기념탑입구를 출발해 정미로, 대동문, 북한산정, 용암문을 경유해 도선사까지 총 6시간여 소요되는 구간에서 진행된다.

4명 1조로 구성되는 각조는 재학생부, 동아리부, 교직원부, 총학생회부 등 7개부로 나뉘어 있는데 오늘(17일) 오후 5시까지 학생과에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내일(18일) 오후 4시 등산코스 설명, 등산준비 안전을 위한 리더회의가 중앙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등산대회는 북한산에서 점심 및 조별 행사를 갖고 도착인 도선사에서 최우수

총학 4·19계승주간 선포

진군대회·마라톤 등 다양

제31주기 4·19혁명을 맞아 서울·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4·19계승주간, 영화상영 등의 행사를 오늘(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각각 갖는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노점상 어머니와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심리적 갈등과 어머니의 행동변화를 다룬 16mm 장편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를 내일(18일) 중앙당에서 상영하며 일정표는 1천원이다.

또한 '제31주기 4·19혁명 계승주간'을 맞아, 영구분단음모조기 격파를 위한 일일 동양인 진군대회'가 오는 19일 정오 도서관 앞에서 열린다.

이날 대회는 4·19의 현재적 의미, 각단위별 모범사례 발표, UN독가위·영구분단 음모분쇄회, 신원실 부총학생회장 투쟁의 경과 등 남북 순으로 진행되며, 중문에서 실천부평을 갖는다.

한편 경주캠퍼스 '4·19혁명 계승주간'이 오늘(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주캠퍼스 교내와 경주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세부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4·19 혁명정신 계승주간(17일) 오후 1시 북아원에서, 구로아리랑, 한나의 전쟁, 전대협발대식 장면 등의 영화상영(소낙비주최)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오는 18일 '4·19혁명의 재조명' 초청강연(강사=김동준·역사문제연구소위원)이, 마라톤경기가 오후 3시부터 사대일 일원에서 열린다.

'소 개혁과 경제' 특강

소련 모스크바 상임대학 후진인 나르포로비치 총학의 '소 개혁과 경제현황'에 대한 특강이 경영대학원 추후로 오는 25일 오후 8시 동국대(L301)에서 열린다.

총장기독교농구 34팀 출전

본교 개교 85주년 기념 '제17회 동국대 총장기농구 전국남녀교동구대회'가 한국총동맹구연맹후원회 총3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본교 체육관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남고부 19개팀, 여고부 15개팀으로 대회개막이래 최다팀이 참가한 이번 농구대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금강관(체육관)에서 판상상고와 동아고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되어 이날 오전 11시 30분 민병천총장동학내의 내빈이 참석하는 가운데 입장식을 갖는다.

남녀예선전은 오는 26일까지 금강관(체육관)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남고부 5조 19개팀, 여고부 4조 15개팀의 각조 리그로 진행된다. 또 결승트너너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남고부 예선 각조 1, 2부 10개팀과 여고부 각조 1, 2부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현역 사상식은 오는 2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있게 되며, 남녀우승팀을 단체상과 최우수선수상(남녀), 지도상 등 개인상을 수여하게 된다.

기 승합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변압기 승압공사와 지하 전선케이블 공사가 빨라야 올해 2학기말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의 정전사태 방지를 위해 전기배선 보수, 전력공급의 효율화방안, 절전 캠페인 등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대, 서강대 등 서울시

를 비꾸어 생각해보는 자제가 필요하다. 단대 입장을 비꾸어서 그 일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생명대학에 상해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만 잘살려고 호화롭게 살고 남을 소모하려고 하는 거기에 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갈등과 투쟁 그리고 폭력들이 악순환되기 마련이다.

비록 꽃을 좋아하고 그 아름다움을 입이 마르도록 찬양할지라도 본인의 행위가 부처님의 불행정신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진리로 꽃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꽃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崔玄覺

보수

대목이거니와 불교의 근본 취지를 천명한 불자이기도 하다.

어제 오늘의 진부한 일은 아니지만 도처에서 벌어지는 살리는 아름다움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과 폭력, 착취 등은 도저히 인간의 진실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본래 남을 상해하지 않는 것을 아힘사(Ahimsa)라고 하듯, 즉 비폭력주의의 모든 도덕의 기준으로 삼고

과 살생행위에 시달리는 민중이 의외로 많이 있다. 정말 갖은 학대의 피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확실한 생명존중의 길은 없을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포함하여 일

경주부총장 취임고불식

민주적인 학사행정 약속

경주캠퍼스 신원실 부총장 취임고불식이 지난 10일 정오 민병천 총장등 내외귀빈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각원에서 열렸다.

참거리에, 반야심경독송, 부총장 분향헌화 및 예불, 고불발원, 부총장약력소개, 부총장 취임인사, 내빈축사, 사중서원 순으로 진행될 이날 고불식에서 신부총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화합속에 융·합정진하는 새로운 기풍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생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학사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습기자 추가모집

대학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다음과 혼돈의 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녀재학생
- ◇모집분야: 일반 및 문화·사·사·사·사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서울 5월 2일 오후 4시까지, 경주 5월 1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자: 서울 5월 2일 오후 5시, 경주 5월 1일 오후 5시
- ◇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시험장소: 화림관 201(서울캠퍼스) 원호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우리는 우리 문화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모범생보다 삶의 모험에 나서서 기존의 낡은 율법과 권위에 도전하는 싸움을 서둘러라”

— 고은 에세이 중에서

高銀 전작 에세이

얼마나 나는 들에서 들로 헤매었던가

한라산을 바라보기에 아주 좋은 자리였다. 나는 시를 썼다. 그러면서 흥차를 마셨다. 햇빛에 비친 아주 맑은 흥차의 빛깔. 나는 그 빛깔에 황홀해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마셨다. 그런데.....

— 들짐지 않는 눈이어, 중

그림없는 그림책

송인 연작소설

신악동전 성장

김영현 최인석 정만진 김한수 이승우 김향숙 하정일 위음

리아카위의 물건들은 한낱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어슬렁어슬렁 시장통을 휘돌았다. 만병통치약을 팔기 위해 무로히 시간을 죽이고 앉아 있는 무면허의 늙은 약사. “할아버지, 요즘은 만병 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내 어린 삶의 끝, 중

나만이 울고 있다. 그것은 나의 유년기의 끝을 알리는 눈물. 성장의 고통을 알리는 눈물. 이 세상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최초로 예감하는 눈물이었다.

— 최인석의 그림자教室, 중

주식회사 동진문화

영업부 522-1671 ~ 3, 522-0442

소박한 민중의식 싹터

—4·19의 비판적 재조명



1. 들어가며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반역사적 반항을 바로 잡으려는 민주투쟁의 혁명적 의지가 담긴 역사적 필연의 사건이다. 이는 몇 세기를 거쳐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반민중적 세력에 대한 저항투쟁의 한 갈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19를 혁명의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4·19가 이승만 독재정권의 몰락을 초래했으며 독재정권이 붕괴되어 외국원조와 국민의 세금을 농간하였던 특권 계급과 자본가층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4·19 당시의 혁명의 근간을 이루었던 학생운동세력의 역할과 당시 사회적 모순을 무엇이었으며,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4·19혁명의 선진적민주주의적 성격과 학생운동의 한계를 지적, 올바른 대안을 지적하고 이를 통한 현시기 학생운동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도록 하자.

2. 몸말

4·19혁명 당시 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해방 후 식민지 유산의 미청산이라는 과제에서 6·25를 통한 모든 생산력의 파괴와 이에 더해지는 식민지 말미잘의 손에서 점령국 미국의 경제 원조가 철폐되면서 심각한 중추성의 형태를 이룩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공업은 미국의 원조와 결합되면서 소비재 중심의 대량생산이 형성되고 상품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농업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 후 모든 농민의 수권이었던 농지개혁이 미분할로 끝나게 되므로 다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영세농의 상태로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구조를 통해 들어오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은 이 땅에서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나타나며 이는 바로 농업에서의 생산력의 정체를 낳고 우리의 농업은 파탄을 맞게 된다.

대중이나 가운들을 보이고 있지 않았는가? 이는 소트지 소유자의 보수성을 그 하나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당시의 농민계층의 현실과 해방 후 좌우의 대립속에서 투쟁대상의 변화, 한국전쟁과 미군정을 통한 핵심세력계와 양민학살을 통한 피해의식과 양민학살을 통한 소용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패배되고 주입되어온 농민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감과 패배의식이 성장의 결핍으로서 변혁시도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4·19혁명 후에도 농민계층의 변화는 매우 완만했으며 그들의 욕구 표현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산만했다. 이는 변혁이후에도 주체적인 농민조직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대한대학교 20주년 기념식 모습



사진은 4·19직후 철사유지에 나선 본교학생들.

통일논의와 운동세력의 선구

했다. 노동자들도 역시 상당정도의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과잉인구의 증가는 직접적인 산업예비군의 증가와 연결, 임금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도시빈민층이 있다. 도시빈민층은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며 노동자 계급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빈민과 고령의 집약적 표현이다. 이들은 해방이후 진행된 저농산물가격정책과 농지개혁의 실패로 가속화된 농촌의 황폐화로 인해 피폐화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계층으로 당시 사회구조적 모순을 가장 잘 대변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민중은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제언에도 불구하고 4·19이후의 현실-이중적 수탈과 만성적 절망농가가 발생하는 극도의 빈곤-속에서도 어떠한 조직적

으로까지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기층민중들의 현실은 몹시도 암울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과 이에 빌붙어 독점재벌화 가는 소수의 자본가들을 제외한다면 어느 계층도 당시의 사회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혁명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언제나 처럼 학사의 전면에서 정의를 위한 힘찬 싸움을 벌였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당시의 학생운동의 존재와 당시 혁명에서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운동과 기층민중과의 관계 및 한계이다. 우선 당시 학생운동세력의 존재부터 살펴보자. 해방이 된 이후 49년 학도호국단의 창설로 인해

학생운동이 이처럼 뚜렷한 현실의식이나 전국적인 조직력의 부재라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4·19혁명의 주체로서 역사의 전면에서 나타날 수 있었는가? 즉 4·19혁명에 있어 학생운동세력의 참가동인은 첫째, 그들의 받은 교육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이승만 독재라는 현실 괴리감, 둘째, 광범한 실업상태로 인한 취업기회의 부족에 기인하는 계층상승욕구의 좌절, 셋째, 대우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당시의 학생운동은 뚜렷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인위적인 행동이었다기 보다는 광범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난 자연 발생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민중들의 지지를 의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당시 학생운동의 역할에 대한 한계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회 경제적 관계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나 명확한 이해없이 낭만적 변혁의 의지만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교훈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4·19혁명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시 학생운동의 의의를 한계에 못지 않게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4·19혁명 당시 학생운동세력의 의의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50년대 실존주의적 허무주의적 인식차원에 서 벗어나 사회학적 차원으로 의식이 확대되고 소박해나 민중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의 소수 선진 운동세력이 이후 운동의 원류였음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세계,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냉전이데올로기에서 최초로 제기된 혁명적 논의라는 것이다. 이는 4·19혁명의 민족적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들은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의의의 역할은 자그마한 것이었지만 후에 혁명 기폭제가 되기에 너무도 충분했다. 부정적이어도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시위들은 대부분이 학생운동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각 도시의 고교생들의 시위후 서울의 고대와 동대, 서울대가 시위에 합류하게 되고 이는 다른 대학은 이 땅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계급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 땅의 모순이 첨예화되는 곳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을 것이다. 각 변혁의 시기마다 역사의 전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투쟁의 선봉이었던 청년학생의 임무는 바로 이 땅의 모순을 이 땅의 고등반은 민중계급들과 함께 고민하고 싸우다가 기필코 변혁의 주인으로 우뚝서는 것이다.

“민주대연합 건설에 주력”

'91 전대협 총노선 점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연세대에서는 구국의 강철대 5기 전대협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91년 5기 전대협 총노선'이 확정됨으로써 올해 백만청년화도들이 활동해 나갈 중심축이 마련되었다.

2. 조직노선
올해 전대협 조직사업의 방향은 민주연합 구축과 전선련 건설, 과학생의 집중과 강화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92, 93년 권력재편기에 대적들이 예견되면서 올해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미국과 민자당을 반대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별조직을 포괄하는 민주연합구축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민주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떠한 틀로 지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민련과 국민연합의 위상논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장점을 조화시켜 단일한 연합 전선적 구축은 단순히 추상적이라는 견해도 지적되고 있다.

3. 투쟁노선
“반미자주와 투쟁을 기반으로 민주정부수립을 향한 반파소민주와 투쟁을 기반으로 조국통일 투쟁을 결합하여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총체적으로 전개한다”라고 투쟁기조에서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영역별 투쟁으로는 반미자주와 투쟁, 반파소민주와 투쟁, 조국통일 투쟁으로 구분된다. 먼저 반미자주와 투쟁의 내용으로서의 폐단전쟁, TS훈련 반대등의 반전 군축투쟁, UR반대등의 경제침략 반대투쟁, 정치적 내정간섭 반대투쟁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또한 반파소 민주화투쟁은 내각제개헌, 장기집권철폐와 분배와 지지적 광역화선거를 민주대연합 구축으로 매진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국통일투쟁부분은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남북군축, 국보법철폐등이 있다.

3. 화추위
학추위는 조국통일운동을 전담하는 전대협산하의 특별기구이다. 지난해에 이어 제2기로 젊은 학추위는 올해의 중점사업으로서 통일방안 합의투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투쟁, 민족대단결을 확산·상승·공고화하는 투쟁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내용으로 두 개의 한국정체과 제도통일로 분해, 전대협 통일방안 수립을 합의투쟁, 남북·해외학생 대추진 추진,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불가침선언체약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 남북 과학생회 교류추진, 장기수와 과학생회 자매교류 추진, 북한영화 상영등이 있다.

이상으로 올해 전대협 총노선에서 제기된 사업에 대해 간단한 점검을 해보았다. 전대협의 사업내용이 아무리 좋고 중부하더라도 결국 힘있는 사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생회 하부단위의 자주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올해가 92, 93년을 앞두고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민주연합을 확고히 건설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단결되고 기열한 투쟁만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할 것이다. (사회부)

제29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전국 남녀 고교 문화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문화의 새싹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9회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 작품종목
(가) 시·시조:2~3편
(나) 소설:50대 내외(200자 원고지)
(다) 수필:15대 내외(200자 원고지)
- 응모요령
학교장(문예반 지도교사)이 추천한 작품을 본사에 제출.
- 시상
(가) 각 종목별로 장원 1편, 우수작 2편, 가작 2~3편을 시상함.
(나) 1차 예선(원고심사) 입선자에게 상장을 수여함.
- 작품제출 기간:1991년 5월1일~5월7일
- 작품제출처: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우편번호 100-715)

특히 우수한 입선자에게 본교 입학후 장학금이 지급되는 가장 권위있고 전문 있는 이 향연에 고교 문화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앨범사진 촬영 안내

'91학년도 4학년 졸업 사진촬영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인물사진
·일시:1991년 4월 22일~5월 3일
·촬영장소:동국관 4층(M동, 여학생 휴게실)

일시	대학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4/22	사과대	불교	인도원	전학과	경외과	사회	행정	경영
23	이과, 예술대	수학과	물리	통계	화학과	연영	미술	
24	공과대	전기공	화학공	산업공	조선	산공 (야)	조선 (야)	
25	공대	전자공	토목공	건축공	식품공	경제	무역	
26	경상대	경영	회계	정보	농생	농생	인학과	농학과
27	아간		영문	경제	회계	무역	경영	
29	문과대	독문	국어	사학과	일본	철학과	영문	
30	문과대	국문과	국어	교육	가교	수교	체교	
5/1	사대	역교	지교	법학과				

*교생 실습자 및 미촬영자 촬영 기간:5월1일부터 3일까지(단, 촬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단체사진
·일시:1991년 4월 29일~5월 11일
·모임장소:불상앞

동국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

'91 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1. 모집인원:1학년(○○○○명)
2학년(○○○○명)

2. 지원자격:4년제대학-1학년('69. 1. 1~'75. 1. 1 출생자)
2학년('68. 1. 1~'74. 1. 1 출생자)

3. 지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91. 4. 1~5. 20(학군단 본부)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이)
·지원서(사진첨부)및 저역서	·흉격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각 1부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
.....각 1부	증명서각 1부
	·사진(4×5cm)3매

4. 선발절차
·1차:서류전형(인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91. 8. 26

6. 특징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육군본부

예비군 기본교육 소집

항군법 제6조에 의거 '91년도 예비군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1. 교육대상:전 예비군(교직원 및 재학생)
2. 교육대상 제외자
가. '91년 1월 1일 이전 전역자
나. '91년 1월 1일 이후 동원훈련 필한자
다. 장기히사 이상, 강교 전역으로 11년이상('80년 12월31일 이전 전역자) 경관자 및 미필 보충역

3. 대학별 교육일정

대 학	교육일정 및 장소	대 학	교육일정 및 장소
경상대·농과대	4월22일:학군교 4월23일:본 교	공과대·사범대	4월22일:본 교 4월23일:학군교
불교대·예술대	4월24일:학군교	사과대·문과대	4월24일:본 교 4월25일:학군교
법과대·이과대	4월25일:본 교	6개대학원	4월26일:본 교 4월29일:학군교
이부대	4월26일:학군교 4월29일:본 교	교직원·강교	4월29일:학군교

*소속대학의 교육일정 및 장소 미 준수자는 귀가 시점

4. 교육장소:본교(중강당)-개인별 도착
학군교(문무대)-문무대입구 삼거리, 잠실전철역에서 버스 대기

5. 교육시간:08:00~17:00(08:00 이후 도착자는 차량 대기 없음)

6. 복 정:예비군복(전투복, 전투부, 전투화) 미착용자는 귀가시점

7. 휴 대 품:중명서(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도시락(현직구대 가능함)

8. 유의사항:
○ 연속2일 교육필해야함(1일만 교육필한시는 행정처리 유보됨)
○ 학교 등록후 14일 이내에 예비군 대원신고 필할것
○ 주소, 전화번호 변동시 14일 이내에 신고 필할것
○ 훈련과 교정실습(또는 국가고시)이 중보되는 예비군은 '91. 4. 12일 까지 관제서류를 제출할것(도장지참 예비군 본부에 비치된 서류 작성 제출)
○ 교육은 2일중 1일은 학군교, 1일은 본교에서 실시됨을 유의할것.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푸른 산빛 속으로

문득 모든 것 멀쳐버리고 푸른 산빛 속으로 떠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정착 떠나야 할 곳은 번잡한 이 도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의 본향산. 내가 가야 할 곳은 푸른 일세 무성한 수풀이 아니라 본래의 나 자신일뿐...

산빛 속으로

밤을 이룬 저자의 스승 백성욱 선생(1897~1981)의 수행에 관한 구체적 조인 '무심'에 내려지는 스승의 탁마 속에서 정진해온 저자 자신의 생생한 수행이정. 이들을 읽는 내 가슴에 새이 열리는, 내게로 이르는, 절푸른 마음의 산길.

80번 중대/개체중보판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갈·김재웅
문·김재웅

도서출판 문학과 지성사
서울시 중구 남산로 12-11 (남산동 1가) 1102호

“위장부도 막아내고 정년퇴직 할꺼예요”

이윤추구에 짓밟힌 노동자 생존권

코스모스 노동조합을 찾아

“기르던 게도 이렇게 내쫓긴 않을 겁니다.”

“그동안 회사의 발전과 함께 회 노예락을 같이했고 뼈까지 깎았더니 돌같이 가라앉았습니까?”

“노조가입에 이젠 부도까지 동원 합니까?”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죽어도 정년퇴직 할꺼예요.”

이 말을 외치며 오늘로서 정확히 50일째 철야농성을 하며 회사가 정상조업이 되는 날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인천시에 위치한 코스모스 전자해마다 이맘때면 단위사업장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은 임금투쟁에 돌입하여 회사측과 노조측 모두가 임금교섭안 체결을 한창일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임금투쟁기간과 때를 같이해서 일부 회사가 연달아 부도를 내고 노조측은 정상조업을 유도하며 농성에 들어가는 등 소위 ‘위장부도’ 사태가 늘고 있다.

91년도 들어서 두들겨지는 신종 단원인 핵심노조간부구축, 인사경연 등 정년퇴직, 손해배상청구 등 다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이 위장부도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코스모스 전자 노동조합을 찾았을 때 본지가 사는 삶의 터전인 사업장을 버리지 않고 정상조업이 되기만을 고대하며 참된 삶을 살려는 노동자의 의지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83년도에 자본금 2억원에 백병의 중입업으로 5인치TV수출업체로 부터 출발, 7년이 지난 현재 자본금 백억에 중입업수가 천여명에 이르는 회사로 성장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노동자들이 매일 하루12시간을 남달려서 자옥한 작업환경에서 흘리고, 바코 또

들리는 단순조립공의 입과로 한 여류엔 선봉기 하나 제대로 없이 따뭇고 고생하고, 자을엔 사정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앞에서 인상을 녹여가며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난 85년에는 석탑 산업은행까지 수상하기도 했어요”라며 그동안 이룩된 회사발전이 대해 모든 노조원들의 자부심은 대단 했다.

코스모스 노동조합은 전체 중입업수가 부평공장에 4백여명, 작년에 신축한 무안공장의 3백71명등 부평에만 3백20명의 노조원들이 지난 87년 8월19일 설립된 이후 인천지역노조협의회에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모범사업장으로 87년 노조결성이후 활발한 조합활동으로 88년 임금인상 완전취득및 주44시간 노동제실시등 인천지역의 노조운동들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이렇듯 인천지역에서 가

노조측의 요구를 묵살시킨 명정전자 위장부도사건을 예로들면서 ‘위장부도도 노조를 무력화시킨 명정 전자가 부럽다’의 발언을 통해 위장부도실수를 암시하기도 했습니 다. 그러던 중 급기야 지난 2월22일 ‘모든것이 끝났다. 임금은 법을 떠나 합리적으로 지급한다’라는 말과 함께 관리자들이 중심이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적으로 운영되고 선 회사측은 모두 떠나 버렸습니 다’라며 말하는 노조위원장과 대부

둘째, 자본금을 1백억원이나 소지하는 회사와 7억2백만원의 부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스모스는 1백억원의 자본금에도 자산1백44억, 명동의 코스모스 백화점 등도 소유하고 있다.

세째, 부도의 형태가 단과부도가 아닌 부도액만큼의 공장시설을 외 부인이나 친인척에게 대여가능한 어음부도만이 남겼고 부도사실을 노동청등에 명문화하는 것을 꺼리면서 신고조차 안된 상태이다.



11억 임금지급 가능에 7억부도 라니

강 활발한 노조를 가진 코스모스 회사측은 여러 타자본기들로부터의 압박과 줄어드는 재정이익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단체협약상인교섭에서 기존의 노조활동권을 부정하는 경단협 지정을 강요하는 등 지난 2월5일의 10차교섭까지 협상을 회피 또는 결렬시켰다.

“10차례 협상도중 실질적인 교섭보다는 지금노조와는 대화하 안된다니 말장본은 노조가 필요하다는데 등 회사경영의 침체를 노조측에 떠넘기더니 지난 1월달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도사태로 임금협상등

분이 가장형편상 시골서 올라와 하숙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부실한 회사경영으로 이윤추구에 한계 못 지니고 노조원들의 생활에 아무런 대책없이 또다른 이유를 찾아 집을 쫓겨가는 비정당한 처우를 생리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이와같이 이번사건이 위장부도라고 증명해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실업의 규모로 지난해에 새로 건설한 무안공장에 대한 부자를 부도직전까지 계속했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노조가 왜대피한 새로운 공장에서 새사업을 재개하려는 회사측의 음모이다.

이는 언젠가 공장이 재가동되면 법적으로도 하하지 않은 재운영할 수 있게한 회사측의 조치이다.

네째, 계속적인 노조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지불투쟁으로 회사측은 벌써 1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급액이 부도액 7억2백만 원을 넘는 사실 역시 누가보더라도 회사측의 일방적인 위장부도임이 명백해진다.

“절코 이번사건은 코스모스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회사측은 노조원들의 일원으로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한 노조조합원들을 똑같이 시켜서 새로운 이윤추구사업에 손질했습니 다. 그리고 노조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자신을 합리화 시켰겠지. 그러나 우리는 넓게 생각할때 지금한정 고강되어있는 지역내 임부분위에 관용을 보이고 노조의 열기를 참는 자본가와 명동상경투쟁시 오히려 노조원들의 활동을 방해, 저지했던 현 정권과의 투쟁이라고 생각할때 현재 임금투쟁이 한창인 인천지역 및 전국의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할때 이대로 물러선 없습니다.”라며 말발하는 올해 임금인상과 불거져등지저 및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쟁의기금모금을 위해 오늘도 하루한가 라면먹이운동 및 일일찾집 열기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번 코스모스의 철야농성은 어쩌면 이렇 자본주의사회의 살아 남는법이 없는 대한 의지인지 이유에 대한 의지인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싸움일 것이다.

(송태명 기자)

제4기 서총련의장 김종식군을 만나



“제4기 서총련의장선출에 있어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40만 서울지역 청년학생들의 통일단체에 저해를 가져올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지만 저로서는 이번 총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의 실천을 내울수 있다는 대의원들의 결의를 느꼈습니다”라며 서총련 의장에 당선된 김종식(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소감을 밝혔다.

—지난 3월26일 실시된 지자체 기초의회선거에 대한 평가와 광

“=민중들의 분출하는 정치·생존권적 요구들을 받고는 정권·당투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한시적인 투쟁으로만 그쳐버렸습니다. 단순한 지지·지원차원이 아닌 단원간의 연대를 통해 서로의 계급적 처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말부터 민중연대주간을 선포 청년학도가 주동적으로 투쟁의 계기를 촉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학생회 강령의 방인과 전총련건설의 전망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민주연합토대 구축에 주력할 터 분임토의와 총회투쟁 정착화해야

역의회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대응지침은

=친연인사의 대거당선에서 보 여지듯 민주당으로서의 광역의회를 장악할수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민주세력의 단결을 분열시키려한 의도까지 관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광역의회선거에서는 자주·민주·통일을 열망하는 민중들과 제도안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진미과소정권에 반대하는 민주대연합을 이뤄내겠습니다.

92·93년의 대궐투쟁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반노태우·반비자당 민주연합전선은 민주정부수립의 토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청년학도들은 4·5월 민주쟁쟁전투를, 임포에대한 연대와 함께 각 학교에서의 대중적 투쟁력을 고양시켜야 하겠습니다.

—5월초 IPU총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현 정권은 이를 통한 분방정책을 이용, 이데올로기 공세를 더욱 강화하려할 것입니다. 청년학도들은 분방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며 또한 올해의 조총투쟁은 무엇이었는가

=법민련에 대한 탄압, 통일인사 수속등 현 정권이 벌이고 있는 분방정책의 허구성은 이미 백 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담이나 한수교류등 정부의 허구적 분방정책에 의해 반독재투쟁의 정세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자주·민주·통일의 총체적 투쟁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화를 이룩하고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극복해낼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올해의 조국통일투쟁은 지난해의 법민련 건설, 1천개 지방방교류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으 며, 동시에 분당의 분질적 문제를 정치·군사문제의 해결에 주력 하겠습니 다.

UN단국가입반대를 통해 두개의 한국조작책들을 폭로해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불가침선언 채택, 평화협정체결등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의의를 활성화 시켜내며, 이와 동시에 연방제방안안에 대한 국민적 공유를 이뤄내겠습니다.

—기존의 민중연대의 한계는 무엇이었던가

키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열과 분당의 책동이 실패할수록 우리는 분당과 단결로 통쳐야 합니다. 이를위하여 학생회는 학우들의 고민과 이해를 함께하며 학우들 스스로 학연과 운동의 주제로 설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또한 분임토의와 총회투쟁을 정착화시켜버림으로써 학생회 강화에 이바지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단부들이 먼저 혁신하고 바로 뒤따 학우들과 하나가 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총련 건설에 있어서의 먼저 부분별·계열별 조직의 강화가 선행되어야하며 지역적 토대의 기반이 닦여져야 합니다.

이미 남대원은 남총련으로 부울총련은 부울총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총련건설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 한몸바치며 40만 학생들 학우, 전대협 백만 학우의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김홍식 서총련의장의 결의를 들으며 더욱 붉게 타오를 ‘구국의 깃발’을 기대해본다.

(용)

동약로

“학우여러분 이자리는 지난 50여일동안 진행되었던 등록금투쟁의 성과보고 및 정리집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학우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등록금투쟁 정리집회를 사수해냈습니 다.”

지난 11일 등록금투쟁위원회 (위원장=오규석·한익환)는 원효관 중정에서 ‘등록금투쟁성과보고 및 투쟁방향제정대회’를 열 어 등·투를 정리하고 이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학우들의 집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발표하고 집회를 정리해 이집회는 오늘(17일)로 연기했다.

“저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참석하려면 자리에 앉아있던지 아니면 가버리든지 둘뿐 된 원효관이 구경하는 것도 아니

구”라며 집회에 참석했던 한91학번이 얘기했던 것처럼 집회를 알리는 사회자의 스피커소리만 원효관 중정에 울려퍼질 뿐 집회에 는 신분사, 방송국 취재기자를 비롯한 학우 대어섯명만 조출하 기(?) 없었음을 뿐 각 자치기구 집행부들조차 집행장 부근에서

주인의식

“등록금 투쟁요, 판심없이요. 해마다 해박야 수업만 빼고 나 중에 손해보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데 뭐하러요?”

이처럼 일반학우들 사이에 팽배 있는 학자부 수업에 대한 불신감, 무기력함을 어떻게 극복 해내느냐하는 것이 앞으로의 학자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기층의 학우들로부터 대중적인 지지기반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을을 학생회는 각인하고 학우들을 이끌어야 하며 이에 앞선 일반학우 하나하나가 이 학원의 주인임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문규기자)

사업이 진행해 등록금협상과정에서 일반학우들에게는 제대로 홍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금투쟁 임의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일정 부분 협상성과를 정리해내는데는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학우들에게 불신받는 화를 자초했다.

“등록금 투쟁요, 판심없이요. 해마다 해박야 수업만 빼고 나 중에 손해보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데 뭐하러요?”

이처럼 일반학우들 사이에 팽배 있는 학자부 수업에 대한 불신감, 무기력함을 어떻게 극복 해내느냐하는 것이 앞으로의 학자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기층의 학우들로부터 대중적인 지지기반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을을 학생회는 각인하고 학우들을 이끌어야 하며 이에 앞선 일반학우 하나하나가 이 학원의 주인임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문규기자)

전대협총회 취재낙수기

○·10일 밤 8시부터 열린 사수대 발족식 및 개막전야제에는 작년 10월 구속된 송갑석 의정원의 어머니님이 참석.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사수대 발족식 및 송갑석의 어머니는 축하사절로 동행하셨는데 송의장님 어머니는 축하사절을 통해 “비록 갑석이는 감옥에 있지만, 백만학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바로 이자리에 같이 있다는 확신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혀 순간 집회장의 분위기가 숙연.

○·이번 제5기 전대협총회를 사수하기 위해 모인 사수대 중에는 91학번 새내기들이 여덟명도 많이 참석해 이채를 띠었다고.

토의시간에도 자기의 당장결의

와 구조로서 선배들과 다른 학생들의 허를 내두르게 하였다는데, 새내기들이여! 벼간 희망을 안고 힘들 임정속에서도 머리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전대협의 참일꾼으로 우뚝서기를 바라오.

○·각 대학 총학생회장님들의 뜨거운 동지애에 사수대 동지들이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다는 데.

내용인즉, ‘전대협총회 사수대 발족식 및 개막축 한마당’중 실시된 스포츠전날에서 총학생 회장님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사수대원들에게 스포츠를 직접 메어준 까닭이라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상부가 하

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전대협 동지들의 작은 정성(?)이 있는 한 결코 잊을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총학생회 선거기간중에 회칼등이 난무하며 백색테러가 자행된다는 속수무견문대 장영호군의 말을 통해 “서총련의 자유로움(?) 선거본위가 선배들의 사의 투쟁의 결과”임이 자각되기도.

○·총회 마지막 순서중 역대 의장들의 모친 소개가 있어서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역시 의장님들의 어머니 다텔다고 자찬.

그중에 특히 3대 임종석의장 어머니의 경우 평소 공부에 안하는 지랄(?)때는 아들도 휘둘렀는데 고교도 면회도중 “장하다 내 아들”하며 울면서 외쳤다고 밝혔을때 모든 학생들로부터 눈물의 박수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佛典간행위원회

현대불교 新書안내

동국대학교 역권인
문의전화: (대표) 267-8131~45
(직통) 267-8578

<p>①고려高僧漢詩選 이원섭 편저</p>	<p>시와 종교는 공통된 일면을 지니고 있다. 시가 언어를 통해 영연의 비를 추구하는 것이리라. 그 영연으로서 해서 종교의 일치되지 않을 수 없도록 처음부터 방향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기수륙원 고승들의 시는 심오한 선의 경지로 해서 더욱 더 다양한 정성을 생경하게 그려내고 있다.</p>	<p>⑤신행 365일 이지환 편</p>	<p>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존재의 조건으로서의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선택해야 할 것은 한마디로 선과 악, 그들중의 어느 하나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염없 좌절하지 않고 선을 선택해내는 힘은 믿음에서 온다. 이 책은 365일의 매일을 그러한 믿음 위에 서서 생활하는 해는 지침서이다.</p>
<p>②항가에 나타난 불교사상 김은하 편</p>	<p>항가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시가이다. 신리의 정치와 문화가 절정에 달한 통일 시대 전후에 나타난 불후의 고전인문학 비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항가를 이해함으로써 불교의 세계에 접어들어 볼 수 있게 된다.</p>	<p>⑥유마경 박경준 편</p>	<p>불교문화의 맥과 맥이 연결되어 가는 것은 대승경전의 대표적 작품이다. 공사상에 의거하여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가신자의 종교적 태도를 천명하고 있다. ‘마음이 깨끗하면 곧 현실 세계도 깨끗해진다.’ ‘번뇌가 곧 보리(깨달음)이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고 설파하는 이 경은 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선 열반에서 제기가 있다.</p>
<p>③미리다 평하 서경수 편</p>	<p>‘미리다 평하’는 그리스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리스인 메타노스(인도명·미탄티)왕이 나가네 비구의 문답을 통해 최초로 이루어진 중서예자의 만남이다. 헬레니즘문화에서 자란 왕이 불교학문에 대해 묻는 예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담담한 이우이론이 화해의 불교에 대한 현대인의 의문을 풀어주는 훌륭한 일문서이기도 하다.</p>	<p>⑦王龜,구국의 僧將들 김영태 편</p>	<p>미중주의 전환기에 나타난 일진배반 당시, 영류·서산·사명·회암·평의·처영·해안·경현·인오·법진·태능·신일 등 의상장들의 활동상을 사실에 의거하여 그리고 있으며, 의상장들의 활동을 통하여 불교의 중생제도와 나라사랑의 사상을 천명하고, 동시에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펼쳐보인다.</p>
<p>④아스퍼스의 불교관 아스퍼스 편 정병조 역</p>	<p>이 책은 독일의 위대한 철인 칼·야스퍼스의 ‘위대한 질문들’ 1권이 수륙원 ‘불타’와 ‘용수’를 옮긴 것이다. 아스퍼스의 불교에 관한 저술은 아마도 이 두 작품뿐이며, 그는 서문에서 밝혔듯이 ‘용수’와 ‘용수’의 ‘위대함을 부름으로써, 그 위대함과 교제함으로써 나: 내 자신이 되게’라고 했다.</p>	<p>⑧조선불교소설선 김기동 편</p>	<p>조선시대 들어와 산문문학의 대표적 양식인 소설이 발전하자 최초로 등장한 소설이 불교소설이다. 당시의 문인들은 즐겨 소설의 양식을 빌려 불교사상과 인생관을 표현하였다. 여기 수록된 다섯 권의 단편은 조선시대 고소설의 대표적 작품이다.</p>
<p>⑤조선高僧漢詩選 이중환 편</p>	<p>조선시대 승려들의 한시는 기교나 시정성에 있어서 한문의 본고장인 중국의 시정들의 시와 비견한다. 여기 수록된 시는 ‘자신의 소에서 眞如의 미를 깨우쳐 주는’ 것을 위주로 가려 뽑았으며, 친절한 주석과 감상을 통하여 불교사문학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p>	<p>⑨사명대사王龜記 신유현 편</p>	<p>임란시대로서 정조시대를 비롯하여 정·목·남·통일기 등 수명이 있으나 왜군의 전쟁에 직접 들어가 적정을 정벌하고 백성과 담판한 한 기록은 사명대사의 일관기인 이 王龜(王龜)의 王龜이다. 또 당시의 전신회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일관사의 중요한 사료이자 가승 사명대사의 標本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p>
<p>⑥승만경 목정배 역</p>	<p>불교는 과연 여자에 대하여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불교는 남녀의 동등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승가가 이 ‘승만경’이다. 승만경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하여 실현된 이 대승경전은 일상생활을 통한 수행을 강조하며, 현실인생을 통한 중생의 제도도 강조한다.</p>	<p>⑩과학과 불교 김용정 역</p>	<p>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어느 종교는 과학에 있어서 과학이든 과학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반면 현대 과학은 불교의 색·심·수·연·기·정·행의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 과학과 불교는 대립적인 상대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진리를 밝히는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p>
<p>⑦부처님의 생애 박경준 편</p>	<p>올창한 대장경의 속에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길을 열어가면 시 그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이 작품은 읽어가: 사 이에 어느 불교의 기초지식을 알기 하며, 부처님을 인간적 측면에서 감명 깊게 접하도록 한다. 또 동시에 대소승의 주요경전의 설법요지를 터득하게 하며, 위대한 부처님의 품에 안기게 한다.</p>	<p>⑪불교에의 초대 권기중 편</p>	<p>흔히 불교란 어려운 종교이며, 불교사적인 어렵다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인생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시불교로부터 신에 이르기까지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불교를 이해하도록 하는 가장 쉬운 불교 입문서이자 인생독본이다.</p>
<p>⑧真心直說 보조국사 지 이기영 역</p>	<p>‘真心直說’은 보조국사의 많은 저술 가운데서도 후세의 학자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글이다. 글은 매우 간결하나 인간에 대한 통찰이 가장 중요한 것. 이 우주 지면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밝혀 드러내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p>	<p>⑫한국의 불교미술 황수영 역</p>	<p>우리 문화예술의 유산 대부분은 불교미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교문화 예술은 우리 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곧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일반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p>
<p>⑨비유와 인연설화 법정 역</p>	<p>비유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들은 각각 다른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인연이 짜여진 눈리야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해속하고 푸근한 이야기가 보다 강할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비유와 인연설화’는 후자에 속하는 일반민중을 위해 걸린 것이다. 오늘과 같이 긴장의 연속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휴식을 주고, 그 대안속에서 자기를 알 아보게 하여 진리에 서는 또게 한다.</p>	<p>⑬현대불교시의 이해 송혁 역</p>	<p>신세계의 대두 이래 광복 이전까지 시단에 등장한 시인들의 작품 가운데서 불교의 영향이나 소재에 관련된 작품은 대상을 못했다. 특히 시적 관습과 불교적 관습은 서로 다르므로 궁극적으로는 유기적인 것임을 이 저서는 확인하고 있다. 그것은 불교적 관습과 그 사상이 시의 언어구조와 견고하게 융합된 작품일수록 우리 시문학사상 기념비적인 성취로 기록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p>

대표권은 넘겨주고 '평화협정' 회피하고

한미연합사 개편 통한 한국군 역할 증대 보여 '평화군축' 제기될 북-미협상 벗어날 의도

'군사정전위 수석 대표권 이양' 어떻게 보아야 하나



△사진은 판문점 군사 정전위 회담

김영환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

지난 3월25일 판문점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인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인 황원탁 육군소장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를 북한측에 통보했으나 북한은 임명통보서를 접수할 거부하는 한편, 북한군과 중국군의 공동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군사정전위에 한국군 장성은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될 수 없음을 통고한다"고 밝히면서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하게 될 때 따라 군사정전위 회담 개최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난을 하였다. 한편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이것이 휴전협정 규정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현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문제를 놓고 미국과 남한, 북한과 중국이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미 양국의 본질적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한미안보체제의 개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체작업

53년 한국전쟁 종결 이래 미군 장성이 맡아온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바꾸는 문제는 지난 2~3년 동안 한미 양국간에 계속 논의되어 오다가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2차 한미연합안보협의회에서 공식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최근 한미 양국간에 추진되는 안보기능의 재편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실제 이 틀 속에서 보아야만 이의 본질적 의미를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세계적인 탈냉전과 평화군축의 추세가 유럽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동북아 및 한반도 지역에서의 기존까지 누려온 전략적 우위를 어떻게 계속 지켜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무모한 군비확장 노선을 추진한 레이건 정권이 집권 2기에 들면서 불어닥친 재정적자의 누적은 미국으로 하여금 총실한 동맹자의 수혈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미국의 충실한 협조자(?)인 한국에게 구체화 되었으며, 이는 소위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정립'이라는 그럴듯한 포장까지 씌여지면서 추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태브의 지휘 체제를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미국의 아태전략 수행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며, 그중 한미군 유지비를 비롯한 막대한 방위비를 분담하라는 것 등이다.

즉 이러한 역할분담 구상은 미국의 동북아전략 속에서 해공군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지상군의 비중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해외주둔 미군 및 미군 기지에 대한 기능재편작업으로 이어져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장기적인 재편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기존까지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대북외교 역할에서 '주공역 기능-주한미군, 보조방어 기능-한국군'이라는 역할방향을 수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방식의 장기적 추진은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의 개편을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 한미연합사 이전의 개편계획은 이 때까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맡고있던 지상구성관 사령관의 한국군으로의 이양을 필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을 구조적으로 차단

하지만 이와 같은 전반적인 한미안보체제의 새로운 변화구도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이 이양작업이 문제로 되는 것은 현재의 준전시상태인 휴전체제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 축을 남북한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자신들을 향한 협상 요구에 그 기본축을 남북한의 협상 틀로 돌리려는 노력을 그만 한미안보체제를 재편하면서 그 기초작업을 서둘렀다. 그 일환 가운데 하나가 이 군사정전위 수석대표권의 이양작업이다. 군사정전위 대표권의 한국군 이양은 여러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군사정전위가 휴전협정의 준수와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북한과 유엔군 대표로서의 미국이 주요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휴전협정의 유엔군 대표의 한국군으로의 이양은 휴전협정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남북한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남북한간에 구성될 수 있는 군사공동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조치는 한미연합사의 지상구성관

사령관의 한국군 이양과 더불어 그동안 자주권의 상실이라는 차원에서 한미간의 대등한 관계로의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형식과 명분을 살리면서 남한내에서의 반미운동의 직접적인 표적으로부터 벗어나 주한미군, 핵무기를 계속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미연합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전위 조차 소유하지 못한 한국군이 군사정전위 상체인 휴전체제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 축을 남북한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자신들을 향한 협상 요구에 그 기본축을 남북한의 협상 틀로 돌리려는 노력을 그만 한미안보체제를 재편하면서 그 기초작업을 서둘렀다. 그 일환 가운데 하나가 이 군사정전위 수석대표권의 이양작업이다. 군사정전위 대표권의 한국군 이양은 여러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군사정전위가 휴전협정의 준수와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북한과 유엔군 대표로서의 미국이 주요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휴전협정의 유엔군 대표의 한국군으로의 이양은 휴전협정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남북한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남북한간에 구성될 수 있는 군사공동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조치는 한미연합사의 지상구성관

미 상공회의소 무엇하는 곳인가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정부관계부처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가 사치품의 수입규제를 해제하고 과소비자제운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미국 자동차 및 전자업체들이 한국에 직접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매업종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통신 및 광고 분야의 개방을 확대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 상공회의소 주한 간담회에서 미국은 국내 TV광고의 확대를 요구, 미국은 또한 일방적 시장개방

차지하는 역할은 '한국내 미국의 경쟁우위의 통로'로 보여진다. 실제로 주한미대사는 주한미상의 명예회원으로 있으면서 매일 주한미상의 임원진과 정기적 모임을 갖고 회원업체의 주요요인에 대해 토론한다고 한다.

지난 88년 당시 필리 주한미대사가 미상의 회보에 보면 매세지에서 이들의 압력적 경쟁우위는 현실로 나타난다.

'미국기업은 육성하는 것은 미래 사관이 해야 할 최우선 임무'의 하

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식해야 된다'라고 임플을 놓은 것은 주한미상의가 바로 한국에 대한 비방과 불평을 늘어오며 대한통상상업의 침범역할을 특목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주한미상의의 소속 회사들의 광고도 수입개방방안만큼이나 너무도 당당하게 자행되고 있다. 세티은행의 변칙대출, 모토로라의 노조탄압, 한국피코의 임금체불 등 이들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

경제침략...한국내 침범 역할 '톡톡'

압력과 함께 금융·광고 등 국내 서비스시장의 구조체제를 미국기업들의 영입에 유리하게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동아일보 11. 15)

'미상공회의소는 미무역대표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철야 운동으로 인한 수입규제 조처들이 철회되어야 한다며 수입 소비품의 구매자에 대한 세부사항 중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홍보활동 전개, 독단적으로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정부관리의 조처를 즉각 수정할 수 있는 기구 창설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3.18)

근래에 들어 신문지상에 조그맣게 장식되는 경제기사를 살펴보면 미국에 의한 수입개방압력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일어난듯 자못 거세어지고있는 양상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UR협상의 돌풍과 함께 유행처럼 전파되고있는 쌍무협상, 자유무역지역 협정 등 큰 줄기를 이루는 개방압력수단 이외에도 미상공회의소라는 작은 줄기의 역할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양국간의 상공업증진에 기여



△사진은 지난 89년 한국피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한 미국인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한 모습

나이다. 대사관 실무진과 주한미상의의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우리 상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주요 요소였다.'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기위하여 그 구조와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한미상의에서 실질적 실무를 담당하는 곳은 무역, 제조업, 은행, 시장판매위원회 등 약 25개의 위원

다. 이러한 주한미상의에 한국인노동자들의 점거사건이 있었다.

지난 89년 피코 자동차들이 사무실을 점거하며 '임금도 안주고 도망간 미국인 사장 구속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주한미상의에 중재를 요청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내뿜은 것은 미국인들이 아닌 백골단이었다.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한

미 정부와 유착 이윤추구 '수입 억제' 중단요구등 내정간섭

한다는 목적하에 주한 미국인 기업가들의 모임인 민간 단체로 설립되었다.

주한미상의회원은 IBM, ATT, 유루, 시티은행등 미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상의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은 기업가 뿐만아니라

주한미대사관의 주요인사와 주한미군의 장성을 까지도 명예회원이거나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바로 정치·군사적문제와 연관되어진다는 상식을 놓고 볼때 그들이 주한미상의에서

이렇듯 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은 주한 미상의정기간행물인 '주요한 안보보고서'를 통해 공식적 견제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는 현재 미행정부, 의회, 무역대표부의 대한통상정책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3일 미상의에서 파소비자제운동을 자체해결것을 요청하자 곧이어 9일 필리피나 미재무차관보가 한국정부에 수입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파소비자제운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점, 그리고 이어서 22일 그레그 주한미대사까지 '한국인들은 미국이 외국상품수입을 부당하게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정철의 본연의 임무가 드러난 것이다.

결국 거세어지는 수입개방압력이나 경제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차별정책을 수립하는 깊은 경제침략의 침범역할을 하는 주한미상의에서부터 그들의 침략성을 저지시키고 나아가 이방의 완전한 자취를 없애는 것 뿐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축출의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일이다.

(유기울 기자)

<p>②소의 세계 -반야 경- 梶山雄一 저 이기영 역</p>	<p>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을 담은 방대한 반야경 가운데서 특히 완가에 한 '소의 세계'를 경전에 담긴 드라마를 통하여 흥미있게 전개하면서 반야경 전반에 걸쳐 해설하고 있다. 때문에 저자는 굳이 어려운 교리의 전개나 관념적인 논의를 피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소의 세계'를 소개하게 되고 있다.</p>
<p>③인도 그 사회와 문화 서경수 저</p>	<p>가까워야 할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는 불교문화의 뿌리에서 있어서 실제로는 서구보다도 더 먼 나라이다. 인도 내부 대학의 교원교수로 한국어를 전공한 강의를 하는 한, 南의 세이문, 북의 이프카나스탄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유적과 현장의 예술품이 거처는 노정을 답사하여, 인도의 석학들과 사인 저자는 고대의 인도를 이 책을 통하여 소개함으로써 그 먼 거리를 단숨에 준다.</p>
<p>④지혜의 완성 -반야경- 정병조 저</p>	<p>반야경하면, 누구나 대승불교의 진리가 담긴 가장 최고 가장 뛰어난 문경의 경전임을 안다. 그러나 심오한 대승불교의 진리를 간결한 문장속에 담은 만큼 그 진수를 얻기란 쉽지 않다. 저자는 그러한 반야경의 평이한 문장으로 해설해주고 있는데, 판본적이 아닌 실전 철학으로서의 반야경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p>
<p>⑤현대불교수필선 송혁권 저</p>	<p>한국인의 인생관과 세계관형성에 깊게 관련되어 있는 불교를 주제로 한 수필집이다. 불교적 작품이기는 하되 글은 이의 소재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삶에 대한 지혜와 철학이 담긴 글만을 가져서 모으고, 감상을 결본인이 수집하는 수필문학의 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p>
<p>⑥大唐西域구법고승전 義淨撰 이흥범 역</p>	<p>唐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함께 2대 인도여행기로 손꼽히는 이 저서는 당시의 중앙 아시아와 인도연구에 중요한 지침서로서 학계에 서는 저술도 진중히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25년에 걸친 유로와 해외의 오랜 행구과 고초를 극복한 이 여행기는 단순한 견문기술한 것을 넘어 뜨거운 구도자의 신행이 간결한 문장속에 담겨 있어 일반 신앙인의 심금을 울려준다.</p>
<p>⑦⑧선의 향연 오경중 저 조영목·정인덕 역</p>	<p>근래에 선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선적인 응답 이외에 명백한 대답을 얻기란 힘들다. 율머스 허슬러가 "현대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을 사회에 적응시키지만 선은 인간을 근본질서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였는데 선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근본질서로 나가게 하는가? 그리고 저가서 무엇이 선의지인가? 가톨릭 신자이며 로마교회의 대사를 지낸 필자가 선의 황금시대인 당대의 선사들을 중심으로 흥미있게 해답을 제시해 준다.</p>

<p>⑨여래장 황산익 저</p>	<p>정당한 범할학자인 필자의 범할학의 기초는 불교사상에 있다고 한다. 필자는 원초의 사상을 중심으로 범할학자가 갖는 '종교'의 문제를 현대 학문의 스타일을 벗어나서 않으면서 자연과학과 서양철학을 널리 동원하면서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파악하고 있는 범할학의 가르침을 내 나름대로 적절하고 했다"고 저술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p>
<p>⑩불교미술개론 문명대 저</p>	<p>오천년의 우리문화사에서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외적이라 할만하다. 우리는 도처에서 우수한 불교미술을 대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것은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일 한 가르침이 없는 탓이다. 이에 저자는 실례를 들어가며 쉽게 풀이함으로써 광범한 불교 미술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p>
<p>⑪불교문화와 희망비극 김장호 저</p>	<p>오늘날 동서양의 문화적 부딪침에 대한 관심은 불교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문화의 근간이라 할 불교의 불교문화와 서양문화의 인연인 희망비극을 한자리에 놓고 인생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시인이자 교수인 저자의 이력적 표현이 일 것이다. 저자는 동서를 대표하는 두 문명체제를 대비하면서 근원적인 인간적 고뇌를 깨고 있다.</p>
<p>⑫법현전 이재광 저</p>	<p>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도 순례한 사람은 많으나 오늘날까지 전례된 기행문은 극히 적다. 그 중에서 이 법현전은 가장 오래되고 완결된 기행문으로서 법현이 여행한 4세기말 당시의 인도의 불교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지리, 풍속 등을 불교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력 있게 일찍부터 많은 학자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작품이며, 대당서역기(현경)-왕오천축국전(희종)과 함께 동양의 3대여행기중 하나이다.</p>
<p>⑬불교와 민속 홍윤석 저</p>	<p>우리나라의 불교는 1천6백 여년을 내려오면서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그녀는 사이에 일반 서민과 생활을 함께 하면서 민중을 성취했다. 따라서 이 나라 불교에는 민속불교라는 영역이 일찍이 형성되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 저서는 민중에 의해서 수용되고 신앙행태로 전개된 민속 불교를 밝힌 호사가 되고 있다.</p>
<p>⑭보살의 인생독본 -유미월의 세계- 武善小路黃勇 著 이영자 역</p>	<p>유마경은 대승불교의 경전을 나타낸 희곡성이 뛰어난 불전문학의 백미이다. 이러한 유마경에서 일본문학의 거장인 저자 '이영'이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영원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간결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문장 속에 담긴 대승사상은 현대인에게 밀착된 인생론을 전개하고 있다.</p>

<p>⑮밀교 정태희 저</p>	<p>저자는 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불교의 지면에 '밀교'가 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국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밀교의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교단인도의 '만트라'라고 소고로 밀교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점을 저자는 지적하면서 정통밀교를 소개하고 소개하고 있다.</p>
<p>⑯불교와 인도고전 정병조 저</p>	<p>인도고전은 신화와 종교철학, 문학을 망라한 인류 최대의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그러한 문화유산의 토양속에서 꽃핀 가장 탁월한 사상인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고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은 불교가 사상적 지향성과 해답의 방법론을 그 문화유산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필자는 특히 불교의 입장에서 인도고전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불교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양자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고 있다.</p>
<p>⑰현대불교와 사회과학 한상범 저</p>	<p>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안다는 사람이 그 아는 것 가운데 하나도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 무익한 뿐 아니라 불교가 이 사회에 있는 연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필자는 현대불교가 어떻게 현대사회의 기여할 것인가를 사회과학의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p>
<p>⑱불교사 입문 塚本隆雄 著 목성배 역</p>	<p>현대사회에 있어서 불교의 새로운 적용과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불교의 원천으로 돌아가, 그 곳으로부터 2천5백년전을 흘러온 불교사 속에서 현대 사회에 불교가 적용되는 원리를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불교의 발달과정과 그 배경이 된 역사적 기반, 즉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발달과정도 불교를 성립시킨 요인을 천명하고 그 해답을 구하고 있다.</p>
<p>⑳근대중국사상가의 불교관 정세현 역</p>	<p>현대에서 발생한 불교는 중국에 와서 꽃을 피웠고 중국특유의 환경에 불교에 불어넣음으로써 중국사상의 대동맥의 일부로 형성했다. 한편 근대에 이르러 밀려들어온 서구문명으로 인해 개혁의 물결앞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 근대중국사상가들은 전통과 개혁, 이상과 현실사이의 걸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그들의 불교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는 흥미있는 일이다.</p>
<p>㉑②서양사상에서 본 불교 M.O.C. 율수 저 김우영 역</p>	<p>'불교란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과 한 저자는 그래서 불교를 자기실현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방향하는 오늘날의 서양사상인에게 자기실현의 길을 본에서 열어주고 있다. 특히 서양사상의 입장에서 원시불교로부터 선에 이르기까지 날카롭게 파헤쳐 불교의 원형을 제시함으로써 그 길을 열어보인 본서는 현대인 필독서이다.</p>

동국대학교 佛典간행위원회 현대불교 新書안내

동국대학교 역경원
문의전화 : (대표) 267 - 8131 ~ 45
(직통) 267 - 8578

진실한 사회상 담아내는 '역사의 기록'

독자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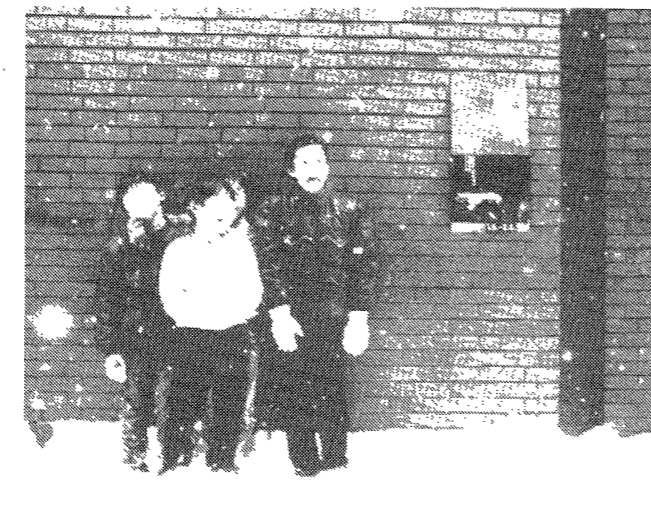
'사진'...

그 의미와

올바른 역할

사진이란 무엇이며 사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다른 예술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사진은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사진은 우리의 불가피한 역사적·사회적 조건과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예술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밝혀주며 문제삼기 때문에, 사진예술이란 아름답고 고귀한 형식 속에 기록된 가치의 총화이다.



◇사진은 그 시대의 모습들과 괴리될 수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리얼리즘'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친진난만한 모습과 '낙태'라는 벽의 글씨가 웬지 걸맞지 않는 듯하다.

민중의 삶과 함께 할 때 만이 올바른 '사진가'

시대의 아픔·모순까지도 숨김없이 보여주어야



사진의 사회적 역할의 시도는 사진가에게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다. 사진의 사회적 분석의 가장 견고한 기반의 하나는 기술적 관점의 문제를 중요시 하는데 있다. 사회적 관심과 증언으로서, 목격자로서의 사진가는 사회현상을 서술하고자하는 의식에 더 흥미를 갖는다. 사진 그 자체에서 하나의 사회와 그 사회의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사진의 현실속에서의 의미는 현실의 노출이나 현대의 사진정형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속에 던져져 있는 순간의 의식, 즉 현재의 의식이다. 오늘날의 인간에게는 모든 시시적인 것, 동시대적인 것, 현실성에 함께 얽혀 있는 것들이 특별한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자체가 우리의 눈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사진은 가장 날카롭게 효과를 이루는 새로운 시간개념의 근원이다.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인 것, 즉 '도큐멘트'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념은 사진의 한

특징이다. 그것은 현실을 세밀히 알아서 정교하려는 사진가의 강렬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 무의미한 진실, 숨겨진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목적을 수행하는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

예술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 가운데에는 독재정권아래 창조된 것들이 허다하다. 예술이 무자비한 폭압정치의 비위를 맞춰야 했고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진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진은 오로지 현실을 창작성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사진이 아무리 우수한 것이라도, 사실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거지, 주된 배를 채워 주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진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가치라면 역사적 기록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점이다. 그래서 사진은 우리의 삶의 리듬 전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이 사회의 모순과 비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차원 높은 눈으로 말하자면 바로 '리얼리즘'이 현실의 총체성을 형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을 통한 종합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진'을 가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동등성이 되리라 본다.

보다 큰 호소력을 표현하는 사진이라면 동시대의 아픔을 다룬 '리얼리즘' 사진과, 사회구조의 모순의 결과인 가난에 대해 논하는 모습의 묘사를 담아내는 사진이라 하겠다. 그 대상이 개인이건 전체이건, 역사 의식속에 냉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진은 대중과 민중에게 공통의 감각을 불어넣어 주는 사진술수단이어야 한다. 사진의 내용은 일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감상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진은 사진술적으로 오로지 우아하거나 또는 심화된 이해력의 창작보다는 실천상의 이러한 전체조건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술감각과 아울러 광범한 민중적 현실속에서 그 영원을 찾을 때 진정한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사진은 시대와 사회를 떠나서는 존속될 수 없으며 진실한 삶의 길을 비추는 표현의 힘이 있어야 한다. 사진가는 모든 비인간적 모순을 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대의 여러 문제를 작품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불합리와 삶의 모순을 들추어내어 사회에 알리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주의

적 차원에서 모순을 시정한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또한 현실 시대의 진실한 사진으로 높이 평가될 기량과 상상력이 결여된 충분한 기능을 지닌 사진가를 원한다. 사진은 사진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관련된 모든 뜻 깊은 문제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진가는 한 시대의 사상적 삶을 직접적으로 문제삼게 되며, 그에 관한 지향을 사진으로 창작하게 된다. 사진은 우리의 삶 전체의 모습이나 특성을 포용하고 바른 삶의 자세를 부단히 일깨우고 비판하는 정신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진의 기능론은 특정한 사상이나 신

다. 사진이 표현하는 내용을 어떻게 민중들이 수용하느냐 하는 것과 사진이 민중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사진에는 절대적 자유가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 건전한 비평이 있어야 하며, 역사적 위치에 서서 사회의 모순에 대해 자유로운 고발권을 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등의 지상을 통해 자주 등장할 수도 있는 사진가란 창작자는 진실한 사진 창작행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자유로운 사진을 실천하는 사진가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오직 진실

된 창작만을 위해 한 생애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구적이고 가식적인 사진은 필요가 없고 솔직하고 진실한 사진이 살아나는 시기가 되어야 하겠다. (동그라미 사진연구회)

문화진단

얼마전인 4월4일 서노문협 대표인 박인배씨가 음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청년'이라는 영화 제작소를 만들어 16mm정형영화를 만들어 시사회를 가졌다. 암울한 시대에서 태어나 살면서 참된 삶을 찾기 위한 아들과 어머니의 갈등과 절규를 내용으로 한 이 영화 역시 시사회 도중에 들이닥친 관할경찰관과 구청직원들에 의해 2명이 연행되고 필름은 압수당했다. 바로 며칠전인 4월12일에는 군에서 제대해 갖 부학한 나의 친구가 최후단을 정면에서 맞아 실명될지도 모르는 채 입원실에서 누워있게 되었다. 새로 생긴 음반법 때문에 요 며칠 시어에 생긴 사진들이다.

음반법은 만들어야 할 것과 만들지 말아야 할 예술창작의 활동을 걸리놓는 어이없는 법이다. 영화의 창작이 어떤 의미로든 어느정도 자유로운 나라이라는 소영영화의 창작활동이 다양하고 자유롭다. 소재제한이 있을 수도 없고 단지 시장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소영영화의 형태를 보는 것이다. 음반법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한

민족영화의 탄압 상황과 나아갈 길

- ... 91년은 연극·영화의 해로 제정되었다. ...○
- ... 그러나 최근들어 문화의 각 분야 특히 민족 ...○
- ... 영화에 대한 탄압은 더욱더 노골화되어 가 ...○
- ... 고만 있다. 파업전야 부활의노래에 이어 오 ...○
- ... 어머니 당신의 아들까지 대대적 탄압이 가 ...○
- ... 해지고 있다. 이글에서는 연극·영화의 해를 ...○
- ... 맞아 진정한 그리고 올바른 민족영화의 나 ...○
- ... 아갈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 ... (편집자) ...○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도덕관은 탄압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된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전제를 시한 생필품에서도 체험해 왔을 것이다. 민족영화란 곧 투쟁하는 영화가 되어야 한다. 창작활동으로 맞서고 법과 부딪쳐 싸워야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싸우다보면 더 나아가 전면적인 정치투쟁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영화의 현실이다. 그래서 민족영화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이고 자주민주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영화의 주제는 바로 민중의 삶과 함께 하는 것이다. 즉, 이기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관객이 되는 것이다. 민족영화의 발전은 바로 두 주체들의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며 언제나 대의에 동의했음에 성취될 수 있다. 영화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외세문화와 투쟁하는 영화

음반법 제정이후 탄압 더욱 노골화 대중적 매체로의 확립이 과제

히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예술창작의 올바른 자세는 항상 반민중적인 독재정권에 의해 필박되어 왔었다. 제작자는 흥행이 보장되지 않는 영화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미 사대주의 문화가 팽배하고 관객은 허리우드영화나 홍콩영화의 테크닉에 길들여진 자라다. 그러나 제작자나 수입업자들은 이윤을 위해 흥행의 길을 택한다. 이것을 대중영화라 부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굳이 정치적 권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영화는 자연 발달한다.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따르지 않는 한 한국영화는 이대로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작은 영화인들이 생겨나고 민족의 영화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모순구조를 이해한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실천물들을 작은 영화들로부터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작은 영화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나서서 특권력의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탄압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관객은 영화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단

못하며 통일된 단결력이 특히 부족하다. 요즘들어 16mm 규격 영화제작이 활기를 띠고 있고 그 내용 역시 민중들의 삶에 접근해 들어가는 데 한발짝 더 나아간 발전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좀더 대중적인 메세지를 인정받고 있는 비디오영화제작이 있어서는 침체되어 있는 듯하다. 보급운동 역시 원형과 되어 있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쌓인 어려움은 상황들과 쉽게 풀리지 않는 여러 이견들, 영화인들의 체계적인 작업의 통일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들이 창작활동이나 정치적 의식의 성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결된 힘을 모아 가면서 극복해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치투쟁을 벌인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탄압에 대응할 만한 힘의 준비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영화인들은 계속 방법을 모색할 것이 더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 영화인들이 민족영화의 주체는 아니다. 어쩌면 주요하는 관객은 더 중요한 존재일 수 있다. 관객은 영화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단

번이 전체를 보고 전체운동에 부족하는 형태로서 자기실천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세상은 지배자에게 의해 주물러 지는 것처럼 보여 몇몇 역사자들은 과거를 얘기 할 때 영웅적 사관이나 사대주의의 사관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근세적 우리의 조상들의 절대노수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피 흘리며 투쟁한 역사를 잊고 있다. 예술은 투쟁하는 민중을 가장 인간적이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왔다. 예술은 작업의 통일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들이 창작활동이나 정치적 의식의 성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결된 힘을 모아 가면서 극복해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치투쟁을 벌인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탄압에 대응할 만한 힘의 준비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영화인들은 계속 방법을 모색할 것이 더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 영화인들이 민족영화의 주체는 아니다. 어쩌면 주요하는 관객은 더 중요한 존재일 수 있다. 관객은 영화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단

안문조 (독립영화협회 회원)

동국대학교 佛典간행위원회 현대불교 新書안내

④ 생활인의 불교	정신적 불안과 갈등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불교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불교의 진수를 쉽게 풀이해 가면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생활과 밀접한 불교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해답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는 점이다. 또 저자는 우리 전통불교의 사색을 들면서 그 현실성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④ 열반종요	'열반'은 불교의 최종 목표이다. 이 불교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열반종요이다. 그러나 44권에 달하는 열반종요는 방대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원효스님은 열반종의 요체를 '열반종요'를 통하여 불교가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열반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길의 開示'를 얻을 것이다.
④ 불교와 교육	불교와 종교이고 종교가 근원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며, 불교와 교육의 문제 또한 불교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과제일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불교의 과제를 바탕에 깔고 인간교육에 있어서 불교교육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불교사상을 교육의 여러 차원에서 현실성 있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④ 불교경전개설	불교의 경전을 속칭 팔만대장경이라고 한다. 그만큼 분량이 많은 뜻을 뜻한다. 따라서 불교의 경전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 이런 경전을 읽어야 불교의 참뜻을 쉽게 알 수 있을지, 그 많은 대장경 앞에서 당연치실한다고도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한 지침이 될 것이다.
④ 한민국의 불상	우리는 어떤 문화풍토 속에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의 대부분은 불교문화유산이다. 또 그 문화유산은 한국의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없다. 저자는 특히 한국의 불상을 통하여 한국인의 제철 속에서 형성된 불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④ 불교와 의학	불교와 의학은 표면상 종교와 의술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러나 인체를 소유주로 파악하는 현대의학의학이 갖는 병인학의 방법과 질병치료의 방법에는 불교의 그것과 맥락이 통하는 바가 많다. 특히 무병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의 인연관·연가관·광명도·4성제 등은 육체의 질병을 완치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④ 인도사상사	인도사상사는 다방면에 걸쳐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간명하게 전체를 서술하기가 어렵다. 특히 인도의 정치는 성립된 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하나의 정권이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상체제마다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풍부한 인도사상사의 진모를 전하려고

⑤ 佛敎의 眞實	고려 중엽에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유성들에 의한 배불정책에 대해 당당히 반론을 펴 주고·도교와 불교의 비교론서, 19개의 항목을 들어 문답형으로 전개되는 명쾌한 논조는 불교의 위상성을 밝히고 불교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시대 초기의 불교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당시 뿐 아니고 오늘에 있어서도 훌륭한 불교이론서 역할을 한다.
⑤ 불교동화의 세계	불교의 경전 속에는 해할 수 없이 많은 동화와 소재가 담겨있고, 그 소재가 이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작가의 동화나 우화에 있지 않게 수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동화의 세계는 불전 속의 소재와 작품을 들어 가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불교의 예지를 터득하게 한다.
⑤ 법화경과 원자물리학	오늘의 시대를 정량물리학의 시대라고 하는 일군의 물리학자들은 우주물리학의 시대를 열면서 우주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 불교사상에 큰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독일 함부르크대학독일어문리학과에서 오랜 연구생활을 일찍이 쌓은 저자는 그러한 물리학의 관심과 아울러 전혀 과학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상을 해서 과학과 불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다.
⑤ 중국불교사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를 중국은 그들의 말과 글로 바꾸어 수용하여 방대한 藏經대장을 집대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독특한 불교사상을 전개함으로써 중국문화 내지는 동양문화에 융성시켰다. 그러므로 중국불교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동양의 문화와 인식을 말할 수 없다.
⑤ 속·인도 그 사회와 문화	수련동안 인도의 내부대학 교환교수로서 한국문화와 인식을 강의한 저자가 특히 현대인도의 상황속에서 불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의 눈으로 보고 느낀 인도와 한국의 동질성을 찾아 엮은 수상본이다.
⑤ 불교·기독교·공산주의	서구사상의 두 조류는 기독교의 관념론과 공산주의의 유훈론이 버티는 다 같이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고, 인류는 그 사이에 끼어 방황하면서 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새 길을 서구의 두 조류를 대신해서 불교로 천명한다.
⑤ 佛敎의 眞實 상·하	한글을 창제한 직주, 관공의 보급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세종대왕이 수양대군에 명하여 짓게한 석보상절은 불교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괄목할 입적일과 동시에 우리 국문학의 영역에서는 최초의 산문작품으로 갖는 의의와 함께 불후의 명작임을 주지의 사실이다.

⑤ 破邪論	법 일 편 박 동 기 역주
⑥ 극락도	홍 운 식 저
⑥ 스님과 그 제자	송 동 자 저 김 장 호 역
⑥ 불교사상의 발전	龔 井 昭 著 조 명 역
⑥ 천정론·호법론	이 승 호 저 김 달 선 역
⑥ 불타의 사상	미카엘 케리터 저 권 오 민 역
⑥ 불교적 인생	서 경 수 저

동국대학교 역경원
문의전화: (대표) 267-8131~45
(직통) 267-8578

●●●● 일런글터 ●●●●

만성화된 자기중심사고... 좀 더 겸허해야 학생회관 화재에 관한 대자보를 읽고

작년 가을 화재에 이어 지난 8일 새벽 3시경 학생회관 4층 모 동아리 방에서 난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본의 아니게 이 두번의 화재를 거의 같은 시각에 목격하는 행운(?)을 접해, 새벽부터 이리저리 둘러보는 소란을 한바탕 피우게 되었다. 다행히 두번 모두 크게 일지 않고 일부분만이 소실되었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낙담하지 못한 학교경영이지만 방충구과 컴퓨터 등 고가 물품들이 조속히 충원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날 게시된 대자보에 있었다.

대자보는 우리 일만오천학우의 눈과 눈물이 결집된 동학의 손이요, 팔로써 가장 빠른 정보보이므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자보의 생명은 첫째도 둘째도 진실이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받은 모 동아리의 대자보는 이러한 믿음을 이용하여 학우들의 판단을 흐리도록 너무나 주관적으로 자기편리에 의해 작성되어 있는 것 같아 읽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내용을 보면 이번 화재의 책임을 소망사실에 대한 제반여건을 미비한 학교 당국에 전적으로 있으며, 그 근거로 화재발생에 있어 소화기, 방화호스 등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말이다. 물론 학교당국이 기타 여러 학내 문제에 있어 소극적이고, 학기초부터 안전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사실을 지켜 보면, 학생회관 3층 3층의 방화호스는 모두 잘 작동되

본사 여론매체부는 동학의 모든 주체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글, 만화, 사진 등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실리는 원고에 대해 소정의 교료도 지급합니다. 각 단계 모니터 요원(편집부장)을 통하거나 신문사로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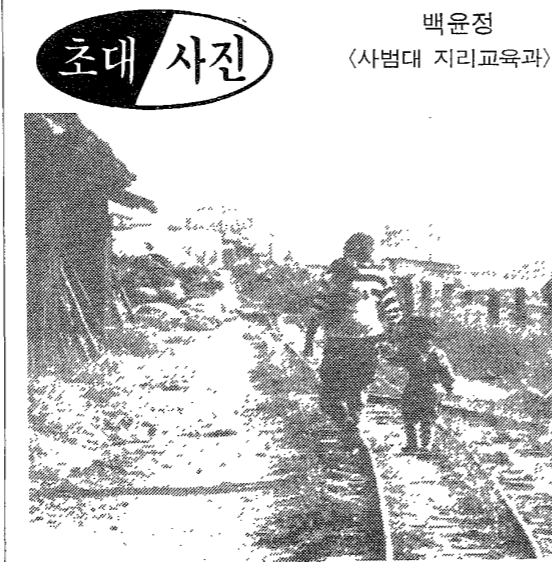
동아리방에서 잠을 청한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분명 동아리방은 여관이나 기숙사는 아닐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내자신도 내편리대로, 내 본위대로 쓰고 있지 않느냐 반문해 본다. 그러나 최소한 대자보에 실린 글보다는 객관적으로 거짓없이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글에 실린 대자보는 책임과 의무 없이 중요하다고만 주장하고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들의 좋은 손 '발이 되어 줄 것이다.'

학교생활에 있어 대자보는 책임과 의무 없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들의 좋은 손 '발이 되어 줄 것이다.'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 진실을 기록해 주었으면 한다.

백운정
(사범대 지리교육과)



달리는 기차대신 동생을 업은 엄마의 귀로 친손을 뽐내며 새모녀가 걸어가고 있다. 길어만기는 소년의 오후

새롭게 나무길 서남총련의 깃발 검증되지 않은 종파주의는 지양

지난 4월9일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남부지구(이하 서남총련) 출범식 날이었다.

나는 서남총련 발대식을 보고 나서, 두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는 남부지구 학우들이 보다 높은 결속력으로 뭉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반가움과 또 하나는 몇몇 학우들의 선진선봉의 장이 되어버린 출범식후의 평가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먼저 "서남총련 남부지구"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서남총련의 부속기관처럼 인식되는 각지구의 위상조각 모호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10개 대학총학생회 연합'이라는 높은 결속을 가지고 각 지구의 구체적인 실정과 조건에 맞게 독자적사업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점이 높고, 기용을 새로이 위상정립한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나에게 그날의 평가는 의아함을 느끼게 하였다. 평가를 예기한 모든 학우들이 "지금의 투쟁력이 약하니 투쟁을 조직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중 투쟁체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학생회의 힘이 학우들에게서 나오듯이 서남총련의 권력 기반은 바로 학우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우들 속에서, 학생회 속에서 검증 받지 못하고 집회마다 선전선봉으로 복귀를 구상하려는 모습은 명백히 종파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의 수렴 공간인 학생회의 투쟁력이 약하다면 학우들의 의해 투쟁사업을 위임받은 사회부서 강화시켜야 하듯이 단위 사회

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같은 말로만 하는 "주체 혁신, 간부혁신"이 아닌 새로운 위상정립된 서남총련의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중앙위원들의 발빠른 일모양을 기대하며, 7만5천 남부지구 학우들의 보다 높은 단결력으로 서남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91년 반미 자주방위의 깃발을 나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최정주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우리의 사랑을 박노해 동지에게 우리의 분노를 노태우정권에게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희망의 색채를 일리는 하나의 상징이요, 파조정권과 독재체제에게는 가장 두려운 이름으로 다가왔던 '노동자시인' 박노해동지가 지난 3월12일 안기부에 의해 잡기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노동자이자 노동자 시인, 시노맹장위원장이라 일컬어지는 혁명가로 불리우던 박노해!

실로 박노해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의 가슴속에 존경과 신뢰와 희망으로 다가왔던 박노해동지의 걸거는 우리들에게 충적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혁명의 땅 남한에서 한 걸 노동해방의 불꽃으로 온 몸을 불사르려고 했던 박노해동지의 구속은 이땅 혁명운동에 있어 크나큰 타격이요, 가슴 저미는

아픔인 것이다. 90년대, 민중승리, 노동해방의 신새벽을 열이 노동자의 진실한 뜻이요, 전위투사의 사슬의 가장 강하고, 남한 신식민주의가 독점자본주의라는 괴물 자체가 만들어낸 산물이고, 박노해는 모든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해방을 향한 힘찬 선봉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우리들의 투쟁속에만 자유로운 박노해동지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투쟁속에서만 진실로 되돌아오는 박노해동지에게 1,400공대학우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애정과 신뢰를 보내며, 제2, 제3의 박노해가 가득한 해방의 새날을 향한 기수로 걸음을 굳게 땀 흘리며 마저 앞으로 박노해동지가 연행되던 서가지도 목이 터져라 외쳤던 구호로 우리들의 걸음을 대신하고자 한다.

가라! 자본가 세상! 정취하라! 노동해방!

(공과대 학생투쟁위원회 준비부)

저열한 황색언론 철저히 비판해야

지난 4월4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우리학교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펜을 들었다.

나는 이것이 '동국대 끝없는 분구'라는 제목으로 문제에 대해 발전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게하는 도덕적 책임을 강고히 무시하고 한낱 티트리고 보자는 저열한 자본주의의 언론 속성을 그대로 나타난 대적적 황색언론이라 생각한다.

지금 어느 곳 어느 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문제되고 있지 않은 곳이 있는가. 또한 '신입 충장반대'부분은 지금 동국대 어느 곳에서도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충장으로서 집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감히 언론에서 '반대' 운운하고 있던 말인가.

물론 우리학교에 기속에서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속이 어조가 '문제가 있다'보다는 '해결하지 못할 분구로 인해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조소의 의미가 행간에 스며들었다.

결국 기사를 읽은 독자가 갖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가 분명해진다. 우리학교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이 아니라 생각할 것은 편하지 않은가.

이 기사 직후에 학교측에서 사과를 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미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학교 등문이나 재학생, 관련된 모든 동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 되어 버렸다.

"자주적인 우리 총학생회"는 무얼하는지 규탄 대자보 하나 못붙일 정도로 비뚤어진 것이 지 모르겠다. 85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까지 저열하고 있는데 불쌍중에서 우리가 안타까울 것은 뭘인가.

문동은
(문과대 영문과)

긴급투고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그런데, 모과에서는 교수가 학생의 지도자인 학생회장에 구타를 가하고 또 부학생회장도 모두 6명의 학생이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4월1일자 대자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신입생 상례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회장을 몇몇이 말하는 그 용기를 반동권사상을 가진사람으로 생각하여 언어폭행과 각자까지 쓰라고 한 것은 언론인간의 조그만 예라고 생각한다.

그 학교의 민주화를 알 수 있으려면 그 학교의 체육과를 보라고 한 말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체육교육과에서는 신·후배 사이의 질서와 순응인으로서의 바른 자질과 자세를 위해 소위 AT라고 하는 체교과와 특수한 근교교육이 있다고 한다. 처음의 이 취지는 체육교육에서의 바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의 활동과 자주적인 생활

- 체육교육과 사태를 보고

을 하지 못하게 된 식으로 홀로 전형을 공개강의와 논문평가가 있는데 현교수들은 이중 전체점수의 20~30%를 차지하는 공개강의를 택했다.

4명이 지원했는데 누가 지원하였는지, 어느 누가 지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존재현교수의 공개강의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결론이다.

'외압'에도 꿋꿋함 지켜야

자, 체교과에서의 교수임용과 사표과정을 살펴보면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많은 교수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었다. 실력의 문제, 자질의 문제인가? 이번 교수초빙에서도 4명의 교수가 지원했다. (신정호, 도경남, 손재현, 정희화). 이 네명 중 손재현씨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발제를 한 무용인이라던 신정호교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신정호교수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경력, 나이, 그리고 논문 등서 류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말이다.

이 문제는 체육과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바른 교수, 인맥이 아닌 실력있는 교수채용문제는 동학단체의 문제인 것이다.

체육과 스코가 물론 해결해야겠지만 먼저 시작하여 온 당국으로 퍼지게 해야 한다. 그러하여 동국대를 사랑하고 자기 과를 자기 단체를 사랑하는 동학인이 됩시다.

문인토의에 기초한 과·단체 역사 알기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 동학 사랑과 사랑과 사랑 단애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학생>

과·단체 역사 알기로 동학사랑을

도시판에서 강의실에서 동학 교정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이과대학총학생회에서 한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이과대학총학생회에서는 '과·단체 역사 알기 운동'을 기초로 한 자료집을 발간하려 합니다.

과·단체 역사 알기 운동은 과·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한 점을 과·단체 역사를 알으로써 자기 과·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과·단체에 자부심을 갖는다면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고 우리 과에 대한 애정이 넘쳐 줄

과·단체 역사 알기로 동학사랑을

리 학생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단체 역사 알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은 변화·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과·단체에 더 많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단체 역사 알기 운동은 몇몇 사람이 준비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들이 대중적으로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소모임이나 각 과 학생회 부서 성원들의 토론에 기초한 운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과·단체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내

신문 평가

지난 4월6일 있었던 동대신문 평가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동대신문의 내용성에 있어서 신문사측의 독자적인 편집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여론매체라는 특수성으로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나 그것에 치우치다 보니 기사나 사진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중 학우들도 알고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듯한 경향이 있다.

동대신문 역시도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입장과 주장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나갈 수 있는 기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된것은 신문의 대중성 측면이다. 현재 동대신문에서는 독자 투고 형식의 기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학우들의 참

도서탐입에 맞선 '소나무'를 살리자

경찰당국은 전국적으로 각지의 책방을 수색하여 고베(윤정모), 철학이세이(봉태) 등 대학신입생 권장도서 20여종을 압수해가고 있다. 지난4월9일에는 올산 '신새벽'서점에도 공산당선언문 도서 3책37권을 압수하고 서점주인 이은숙(27세)를 구속하였다. 이땅의 주인들, 국가의 새이 찾은 권력중용금지, 권력중용금지, 기타 사법부의외에 대한 보장을 지금의 권력자들은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탄압을 하고 있다.

신문 평가

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양과 질에 있어서 학우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한다.

우선 학우들의 인식속에서 동대신문은 기자들이 만드는 것이고 나는 읽기만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크게 두가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조심하게 편집을 하는것보다도 효과적인 기사를 위해서를 좀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편집 기술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8면을 발행하는 것으로 지면이 부족하여 충실한 내용을 충분히 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현재 시도중인 12면 발행의 첫 수를 점차 늘려 나가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행사 안내단의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신문 평가

이땅의 자유와 알자유, 인간다운 삶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위해 우리의 단결이 필요함이다.

정수경
(국사학과 81학번)

日本留學

日本留學에 뜻을 두신 분에게!!

TRUST ACADEMY

東國大學의 日語日文學科/科代表

만을 통해서

TRUST ACADEMY 가 줄 수 있는 모든 特惠를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特惠보다 더 중요한 신뢰 (TRUST) 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 주시면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 日語日文學科/科代表

서울역 광장 아래 4호선 전철출입구앞 (02) 702-6737/8

프랑스어

5~6월 학기 수강접수중

●개강 : 91.5.1(수)

alliance Française

METHODES Adolescents-Adultes

알리앙스프랑세즈

•mauger I, II sans fron. I, II, III
•archipel I, II, III, bonne route I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traduction, theme, SFP 유학준비반
•각 과정 특강수업반, 문법총정리반
•conversation libre. 시시메다반.

seoul-centre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364-0189
TAEJU: 255-4630 DAE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聯盟 韓 佛 文 化 財 團

독일어

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스페인

어학연수

실명회: 4월27일 오후 4시 인명구아 분고

매일초개강 inlingua®

독일어

어학증명서 독일대학에서 인정

회화·문법·독해

독자·PNds

이탈리아어 회화 문법

유학생 항공요금안내

인링구아 서울

중로구 신철동 19-19 (충무로역 뒤 세번째 출구)

☎733-3804, 735-7923

名門考試院

(하숙)

■가까운 곳 (도보5분)

■저렴한 곳

- 독일 15만원대 (3식포함)
- 2인실 15만원 (3식포함)
- 다인실 13만원대 (3식포함)

■Room만 사용가능

■TEL

- 232-3435
- 237-6336

* 약도 *

동대정문, 정충체육관, 의학은행, 기업은행, 명문考試院, 동국대, 신철동4거리, 신철은행, 문필동

중구신당동 372-43

사자부실택 58099-1715550 상부 이광춘

탄압받고 민중편에 올곧게 서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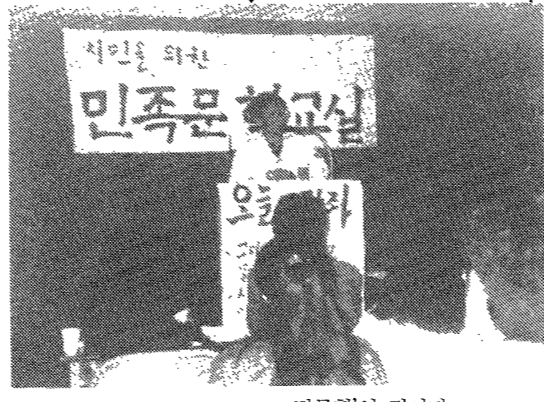
제6회 시인을 위한 민족문학 교실이 민족문학작가회의(의경=고은) 주최로 열려 시와 소설 창작, 여성의 현실과 문학, 우리문학과 외국문학의 올바른 이해,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북한문학과 통일문제 등에 대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시 한국가톨릭교구 교육원에서 열린 '노동문학에 대하여'와 '농민문학에 대하여'의 강연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실는다.

노동문학에 대해 방형석소장은 "노동문학의 변천과 원천, 전망과 과제 등을 이야기했으며, 방형석소장은 현 농촌의 모습과 농민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연설을 했다."

제6회 민족문학교실 '노동문학과 농민문학'

이러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과학성과 진보성을 지닌 소설문학으로 확장되어 '셀물처럼', '불비 내리는 날', '할아버지' 등이 간행되었으며, 현재 노동자문학회를 통한 집단 창작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형제 6회를 맞는 민족문학교실은 시민들에게 '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노동문학...노동자문학회 통해 창작활동 활발 피폐화된 농촌 현실 인식 선행돼야... 농민문학

노동문학이 현대까지 이르러 온 배경을 보면 먼저 노동자계급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 사회 당면과제인 조국통일과 자주화, 사회민주화를 스스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과 파조체제 아래서도 문학적 양심을 지켜온 이들의 활발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도시민권, 청년학생, 양심적직인, 중산층공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노동문학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일한만큼 대접받고 기여한만큼

민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를 노동에서 내내 정부에서 살지않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싸고 이용하기 편한것이라할지라도 농촌과 고향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면서 손끝에서 농민들의 피땀을 느껴야 할 것이다.

'시골은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포근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농촌이 참다운 마음의 고향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격정없이 뛰쳐나와서 농촌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농민문학'인 것이다.

7·80년대 과학적 근대화정책으로 인한 농민의 뼈저린 생활을 권력의 탄압아래서도 감용, 고체중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묵묵히 담았다.

농촌·농민문학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도시에서도 함께 활발하게 문화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실사 외의 농산물이 싸고 이용하기 편한것이라할지라도 농촌과 고향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면서 손끝에서 농민들의 피땀을 느껴야 할 것이다.

'시골은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포근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농촌이 참다운 마음의 고향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격정없이 뛰쳐나와서 농촌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농민문학'인 것이다.

(이경애 기자)

대륙과 해양의 사이에서



대륙에 뿌리를 박으면서도 대륙에 버금가는 아대륙의 의미를 동시에 안고 있다. 대륙도 섬도 아닌 중간의 위치가 땅이 바로 반도인 것이다. 그러기에 한반도는 중국에서 바라보면 대륙의 영토로 착각하기 쉽고, 일본에서 바라보면 섬나라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용이 못된 이부기처럼 대륙과 차등을 둔 냉소적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

바다로 돌출된 육지를 반대로 표현한다. 섬을 담으면서도 완전한 섬이 아니듯, 대륙에 뿌리를 박으면서도 대륙에 버금가는 아대륙의 의미를 동시에 안고 있다. 대륙도 섬도 아닌 중간의 위치가 땅이 바로 반도인 것이다. 그러기에 한반도는 중국에서 바라보면 대륙의 영토로 착각하기 쉽고, 일본에서 바라보면 섬나라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용이 못된 이부기처럼 대륙과 차등을 둔 냉소적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조차 생업기반에서 동의 중간성을 유지하고 있음은 환경의 영향일까. 땅을 갈아엎는 농업, 바다에서 건지는 어업이 반도의 여건에서 주된 생활수단인 것이 때문이다. 작물생산은 보육력을 가진 토지에 파우력으로 근원적 힘을 가졌다고 보는 지식을 농민들이 숭상한다. 바다에서 얻어지는 풍어와 안전조업을 해상 조건에 관가들이 남으로 이를 관장하는 용왕에 어민들이 지성을 바친다. 그러니 신앙대상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절정의 공간이 큰 반도이다. 오늘과 같이 종교가 난립된 상황에서도 분생없는 공존이 유독 한반도에서만 유지되고 있음도 이런 환경에 오랜 세월을 적용해온 탓이라.

역사발전의 과정도 비슷하다. 조선왕조는 의형제의 독립을 유지했지만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왕과 민은 정초부터 북경을 향해 배배하는 단관제를 다뤘다. 왕위계승도 청조의 은밀한 허락을 받았으니 봉건시대에 군주를 받

노동문학에 대하여

노동문학은 2·30년대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통한 계급투쟁을 나타낸 소설을 기반으로 50년까지 일정정도 성장을 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좌익탄압으로 진보사상과 그 문화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폭압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고빈과 고통을 담은 수기류들-'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어느 돌쟁이의 외침', '서울로 가는 길', '공장 옥살이에서'-이 나오며 노동문학이 하나의 커다란 계급문학으로 정착되면서 '노동의 새벽' 등 삶을 노래한 문학적인 글들이 쓰여진다.

올바른 문화운동을 위해

1. 풍물이란?

풍물이란 농악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풍과, 장, 장고, 북의 4가지 주요 악기를 치며 여기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것과 동시에 잡색을 이용하여 풍물놀이로 불리는 풍물놀이를 말한다. 따라서 농악이라고 말할때 단순한 농악만 아니라 음(가락)과 춤과 장단, 극과 놀이의 의식(고사)이 통일적으로 결합된 종합 예술로서 풍물을 일컫는다.

2. 풍물이 생겨난 유래와 변천과정

풍물의 유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로 원시공동체 사회의 제천의식으로 소급된다. 그 당시 제천의식의 주 내용은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으며 다산과 자연으로부터의 재해를 막기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이 행사를 즈음하여 사람들의 화합과 단결을 꾀했었다. 물론 당시의 풍물은 오늘날의 풍물과는 다른 것이었겠지만 거기에도 원시적이거나 약기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후 노동이 분화되고-하지만 생산력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협업'을 통해 농사를 지었다. 협업은 서로 힘을 합하여 일하는 것이므로 서로 일의 효율을 맞춰 노동의 능률을 올리고 피로를 더는 것이 필요했다. 이즈음에도 풍물이 계속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풍물은 이와같이 단순한 놀

민족의 한과 정서 이어받는 풍물과 돼야

3. 단과대풍물공연의 건설배경과 전망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으로 민족적 전통을 무시하고 서구적인 합리주의의 발달로 정부는 민족적인 것은 미신, 낭비인것으로 치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당산, 악기 등을 무수히 없애 버렸다. 70년대 말 이후 관주도에 의한 전통적인 문화보존 노력이 형성되나, 문화재 지정, 각 지방의 민속놀이 재현 등으로 이어지고 있을 무렵 도시의 대학이나 고장, 농촌에서는 공동체적인 풍물의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됐다.

자이실현의 과제와 풍물패원들간의 솔직한 자기고백의 과정에서부터 우려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부터 대중들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위해 89년 제1기 '단과대 풍물패 연합' 건설되었다. 초기에는 단체 동아리식으로 풍물을 보급했으나 이제는 풍물을 치고자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지지속에 과(村) 풍물패로의 전환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풍악의 52개과중 30여 개과에 풍물패가 건설되어 있으며 인연은 약관백여명으로서 이들의 지도내용생산과 효율적 강습정진을 위하여 단과대 풍물패 주체 연석회의를 한달에

글 쓰는 차례

1. 문화의 문제점 고찰
2. 문학
3. 노래
4. 풍물
5. 미술
6. 민속극
7. 춤경

학우이며 91학번에게는 아직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4. 앞으로의 과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풍물을 배울것인가? 막연히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좋더라든가 신나게 놀수있기 때문에 좋더라든가 아니라 먼저 풍물에 담긴 공적으로 신명을 불기기 때문에 집단적이며 세계, 양반문화와는 달리 동적이고 내재, 외적으로부터 공격에 항복을 방어하기위한 전투적 성격을 함께 가지며 다산적, 협동단결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적의 강하여 공동체적이라는 것 등이다.

바로 단풍원의 발전은 앞의 제시에서 나온 고민과 실천속에 이루어 내는 것이며 민족문화의 계승과 자주적 문제해결의 지향의 과제와 남을 것이다.

일제치하에서 태평양 전쟁때까지, 쇠퇴를 공출로 약탈화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풍물을 어떻게 자기 삶의 소도구로 만들어 식민지 넓은 들로부터 영웅부부 같았는가 또한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박재원 <불교대 인도철학과>

바다로 돌출된 육지를 반대로 표현한다. 섬을 담으면서도 완전한 섬이 아니듯, 대륙에 뿌리를 박으면서도 대륙에 버금가는 아대륙의 의미를 동시에 안고 있다. 대륙도 섬도 아닌 중간의 위치가 땅이 바로 반도인 것이다. 그러기에 한반도는 중국에서 바라보면 대륙의 영토로 착각하기 쉽고, 일본에서 바라보면 섬나라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용이 못된 이부기처럼 대륙과 차등을 둔 냉소적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조차 생업기반에서 동의 중간성을 유지하고 있음은 환경의 영향일까. 땅을 갈아엎는 농업, 바다에서 건지는 어업이 반도의 여건에서 주된 생활수단인 것이 때문이다. 작물생산은 보육력을 가진 토지에 파우력으로 근원적 힘을 가졌다고 보는 지식을 농민들이 숭상한다. 바다에서 얻어지는 풍어와 안전조업을 해상 조건에 관가들이 남으로 이를 관장하는 용왕에 어민들이 지성을 바친다. 그러니 신앙대상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절정의 공간이 큰 반도이다. 오늘과 같이 종교가 난립된 상황에서도 분생없는 공존이 유독 한반도에서만 유지되고 있음도 이런 환경에 오랜 세월을 적용해온 탓이라.

역사발전의 과정도 비슷하다. 조선왕조는 의형제의 독립을 유지했지만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왕과 민은 정초부터 북경을 향해 배배하는 단관제를 다뤘다. 왕위계승도 청조의 은밀한 허락을 받았으니 봉건시대에 군주를 받

생활관습을 살펴봐도 풍조의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달의 운행에 기초를 둔 음력을 사용하면서부터 우수정침이 봄소식과 함께 발간을 알리는 절기의 하나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농사의 절기와 간만의 시기를 알리는데 이상의 합당한 자료가 없었기에 원류를 따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도시민들은 농사와 어로에 무관한 생활을 하였으므로 원리의 유래에 따라 양력을 선호해 왔다. 일제후 유력파를 지지는는 '5·1세력'은 도시민과 신식교육을 받은 '신중'이 음력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오히려 주체를 내세워 수구적 문화지향함을 극세의 감을 알리는 아이러니이다. 어떻게 양반된 달력사용의 관습은 으름장같은 설날까지 신정과 구정으로 인위적으로 놓았다. 그동안 신정에 가려졌던 구정이 민속명절로서 공인을 받으면서부터 구정일제의 대륙문화와 신정일제의 해양문화가 한반도에서 또다시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제 한반도는 바다와 육지를 번갈아가며 황도에 배회하던 굴중의 시대에 있지 않다. 국제적 명성과 지위가 향상되는 동방의 새 별로 떠오르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진전을 맞이하여 태평성세를 노래하며 북경을 향해 배배하는 단관제를 다뤘다. 왕위계승도 청조의 은밀한 허락을 받았으니 봉건시대에 군주를 받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정원
- 엄격한 학사관리
- TEST (영어교과목)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1-3, 토: 1-4 매시간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회소식!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3명만이 체험한 확실한 秘法!

MBC라디오 여성시대 출연 (1991.1.14~20)
(김현철 의학박사의 아재호소법)

목적: 배웠던 여대생의 살빼기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신문을 장식하는 이런 황제는 비만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 고민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름답고 날씬해지고 싶다. 이것은 모든 여성의 소망입니다. 여기 아재호소법으로 1주일에 5~7kg를 책임감원 하는 秘法을 소개합니다. 체중 노력 다 해보았으나 실패하신 분들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책임집니다. 다시 살찌지 않습니다.

<가사, 직장생활에 전연 지장이 없습니다>
<효과 없음 환불보도 실시>

도시출근 청맥 발행 값 2,000원

전화주시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책값 2,000원은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글자연요법동우회 문의상담 436-4675~6

91 여름방학 해외어학연수

공부도, 여행도 짝꿍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유명한 광화문영어학교가 이번 여름방학에도 미국, 영국의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센터가 아카데미의 버클리대학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대학교의 진정한 민방가정에 머물며 삼주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영문법 명칭지 문과여행을 하게 됩니다.

- 미국코스 (버클리대학교)
기간 1991.7.7~8.6(30일) 31일
보상인원 25명 인원
강사: 샌프란시스코, 몬트리, 케임,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버밍엄, 시카고, 하와이 등.
- 영국코스 (런던교외의 FCE학교)
기간 1991.7.6~8.7(32일) 33일
보상인원 25명 인원
강사: 런던, 웨스트, 리드, 케임, 캔터베리, 도버, 워싱턴, 부다페스트, 로마, 나폴리, 프랑크, 로마, 제네바, 파리 등.

여권과 비자의 수속은 전문있는 사회복지사(주)에서 드립니다. 등록 절차 문의는 광화문 영어학교(영어교육학원)으로 해 주십시오.

영어회화라면 그 유명한 광화문영어학교

영어회화라면 그 유명한 광화문영어학교

- 강사진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월 75분, 주 5일, 8주
- 반 편성: LEVEL TEST 후 8~13명씩 7단계

제대법인 연어교육 부설 연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 호텔 2F·전화 (02)737-4641 (대)

VOGABULARY TEST

어휘문제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英 語 研 究 社 English Study Center 723-1602-735-751

1. 행정부 주특기 부여
2. 매월 단독 영업
3. 6주 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사학원주의

◎ 사무자동화(OA)병
◎ 차트(일반행정병)
◎ 타자 행정병

관인성학원

☎ 730-6946 ~ 7
종로1가 무과수계2층

관인유니타학원

☎ 735-2323, 9716
종로1가 제일은행 옆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대안을 모색한다

학교마다 정관개정 움직임 확산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본교에서 활발히 학교가 재임용에서 탈락되고 동의대, 상지대에서도 사립학교법 철폐가 있다. 이에 반해서는 두회에 걸쳐 그동안 사립학교의 만행과 이후 대안을 제시해 본다.

최근 교수 재임용탈락과 관련 개악 사립학교법이 악용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조선대등에서는 교수·학생·교직원 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학원 정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며 사립학교법 개정1년을 돌아보며 사립학교법의 철폐를 막을 수 있는 세계경쟁의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16일 개정안이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립학

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을 그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교육자들에게 그 내용이 사적인 일러지지 않은 채 은밀하게 심의, 상정, 통과돼 개정법이 표명하고 있는 명분과는 달리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원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가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그 명분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연세대의 경우 지난 2월28일 이사회를 통해 10년과 20년 교수 재임용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년제 교수로 승진한 후에는 정년퇴임까지 교수직을 맡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도 교수협의회, 교무위원회, 직원노조, 학생총동맹 등으로 정년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와 부교수의 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정안을 지난 3월8일 합의했다.

교수임명기간의 임의적 규정 외에도 사립학교법은 황교수의 경우, 교수임명권을 재단이사장에 부여(사립학교법 제53조2항, 정관 제43조2항)해 재단의 학원정관을 제도화 했으며 인사교원 임용제를 도입(사립학교법 제54조4항, 정관 제43조의2)해 인사교원회의의 남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또 재단이사회의 총·학장임명권(사립학교법 제53조 1항, 정관 제43조 1항)장악은 총·학장 직선제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이며 재단이사회의 친·인척 임용비율의 상향(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조정은 지금까지의 3분의 1에서 5분의 2로 증가시키므로 이사장 및 친·인척의 자의적인 대학통제, 단압의 여지를 증가시켰다.

이 밖에 명예퇴직교수제 신설(사립학교법 60조 3항) 통한 권고사직이나 해직의 방편 허용, 대학평의회 도입(사립학교법 26조2항) 통한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를 추구해온 평교수협의회나 교수협의회와 활동 무력화, 이사장의 타 학교 교원의 이사장 겸임 허용(사립학교법 23조 4항) 통한 사립대학재단의 학원구분제와 가능 등의 독소조항이 개악 사립학교법에는 내재해 있다.

이렇듯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총·학장, 교수, 직원면면 등 대학운영에 대한 모든 인사권 재검토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한 그간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사학재단의 축적제출금과 무제한 적 이익추구를 합법화시킴으로 사립대학 운영의 파행성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의 경우 지난 2월28일 이사회를 통해 10년과 20년 교수 재임용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년제 교수로 승진한 후에는 정년퇴임까지 교수직을 맡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도 교수협의회, 교무위원회, 직원노조, 학생총동맹 등으로 정년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와 부교수의 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정안을 지난 3월8일 합의했다.

이 밖에 명예퇴직교수제 신설(사립학교법 60조 3항) 통한 권고사직이나 해직의 방편 허용, 대학평의회 도입(사립학교법 26조2항) 통한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를 추구해온 평교수협의회나 교수협의회와 활동 무력화, 이사장의 타 학교 교원의 이사장 겸임 허용(사립학교법 23조 4항) 통한 사립대학재단의 학원구분제와 가능 등의 독소조항이 개악 사립학교법에는 내재해 있다.

이렇듯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총·학장, 교수, 직원면면 등 대학운영에 대한 모든 인사권 재검토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한 그간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사학재단의 축적제출금과 무제한 적 이익추구를 합법화시킴으로 사립대학 운영의 파행성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의 경우 지난 2월28일 이사회를 통해 10년과 20년 교수 재임용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년제 교수로 승진한 후에는 정년퇴임까지 교수직을 맡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도 교수협의회, 교무위원회, 직원노조, 학생총동맹 등으로 정년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와 부교수의 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정안을 지난 3월8일 합의했다.

이 밖에 명예퇴직교수제 신설(사립학교법 60조 3항) 통한 권고사직이나 해직의 방편 허용, 대학평의회 도입(사립학교법 26조2항) 통한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를 추구해온 평교수협의회나 교수협의회와 활동 무력화, 이사장의 타 학교 교원의 이사장 겸임 허용(사립학교법 23조 4항) 통한 사립대학재단의 학원구분제와 가능 등의 독소조항이 개악 사립학교법에는 내재해 있다.

이렇듯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총·학장, 교수, 직원면면 등 대학운영에 대한 모든 인사권 재검토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한 그간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사학재단의 축적제출금과 무제한 적 이익추구를 합법화시킴으로 사립대학 운영의 파행성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의 경우 지난 2월28일 이사회를 통해 10년과 20년 교수 재임용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년제 교수로 승진한 후에는 정년퇴임까지 교수직을 맡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도 교수협의회, 교무위원회, 직원노조, 학생총동맹 등으로 정년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와 부교수의 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정안을 지난 3월8일 합의했다.

이 밖에 명예퇴직교수제 신설(사립학교법 60조 3항) 통한 권고사직이나 해직의 방편 허용, 대학평의회 도입(사립학교법 26조2항) 통한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를 추구해온 평교수협의회나 교수협의회와 활동 무력화, 이사장의 타 학교 교원의 이사장 겸임 허용(사립학교법 23조 4항) 통한 사립대학재단의 학원구분제와 가능 등의 독소조항이 개악 사립학교법에는 내재해 있다.

복지시설 학생직영 불허

교육부 본교등 11개 대학에 시정 공문 발송

사학이 있는 등 복지시설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를 촉구하니 91년 1학기내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서울대, 경북대, 충북대,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등 11개 대학을 수신처로 하고 있으며 그 수신처가 학생총동맹이 활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운동연합의 일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본교의 경우 다량관 매점·학생식당 직영화에 이어 동국관학생식당, 서경도 직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작년이 이은 몇차례에 교육부 공문이 학교당국의 행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직영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지

경대학회(회장=이정철·경제4)추최로 7개학과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배구, 줄넘기 등 9개종목으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한마당은 민의총동맹과 막걸리빨리마시기, 물풍선던지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91학원 대동풍이 한마당'이 재연대학회(회장=이재필·조경4)추최로 지난9일 가교과등 8개학과·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동풍을 비롯한 교내일원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학내복지시설 직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당국이 직영화확산을 저지하려는 공문을 교육부가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생운동연합의 한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7일자로 발신된 교육부장관 명의의 이 공문은 '대학구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매점등 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영 또는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학교 세입화하여 학생들에게 지원된 본행사와 번의 행사로 전교조 불복을 판매한다.

또한, 오는 23일, 24일 양일간 '91성경인 모듬한마당'이 상

단대별 대동제

경주캠퍼스 '인문대대동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문대학회(회장=이종화·영문4)추최로교내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축구, 3인4각, 민중봉오르기 등 9개종목으로 치뤄진 본행사와 번의 행사로 전교조 불복을 판매한다.

경주캠퍼스 '인문대대동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문대학회(회장=이종화·영문4)추최로교내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축구, 3인4각, 민중봉오르기 등 9개종목으로 치뤄진 본행사와 번의 행사로 전교조 불복을 판매한다.

향교수 담당강좌 학점불인정 종교철학등 시간강사로 교체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된 황필호(철학)교수 담당강좌에 대한 학점불인정으로 황교수 담당강좌가 전면 '강사교체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는 교제된 시간강사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수'에 필요한 수업일수가 학사일정 2/3 학기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현재 교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황교수가 계속 강의할 경우,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등에 의해 취해진 것으로 3학년 전종성학원 종교철학을

비롯, 6개 과목 모두가 시간강사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황교수는 지난 10일 학원(소강당)에서 열린 철학개론 강좌를 들은 8개학과 1학년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학점과 무관한 종교철학 강의를 계속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강사교체에 따라 종교철학은 오는20일부터 토요일 1·2교시에, 철학교육론은 토요일 4·5교시에 각각 명진관(A110)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제5기 전대협 의장에 김종식군 "민주연립정부 수립 박차가할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제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려 총노선·투쟁노선을 결의하고 제5기 의장에 김종식(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을 선출했다. 전국 1백7개대학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참관인, 사대대학생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서훈연 부의장 한철상(서울대)군은 투쟁노선 발제를 통해 "92·93년은 민주운동전진과 미·노일당과의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민주연립정부를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총체적 전개를 원칙으로 92·93년 승리를 위한 민주연립정부를 수립을 기점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반미자주와 투쟁에서 △반전진군 △경제침략분쇄 △정치적 내정간섭 반대투쟁을, 반미소 민주와 투쟁에서 △내각제개헌 저지 △민중연대강화 △민중민주운동 탄압분쇄 △지자체 광역의회 선거로 민주연립정부를 수립을 기점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반미자주와 투쟁에서 △반전진군 △경제침략분쇄 △정치적 내정간섭 반대투쟁을, 반미소 민주와 투쟁에서 △내각제개헌 저지 △민중연대강화 △민중민주운동 탄압분쇄 △지자체 광역의회 선거로 민주연립정부를 수립에 박차를

전대협 총노선 결의문체택은 △자민통투쟁 총체화 △민중연립정부를 수립을 기점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반미자주와 투쟁에서 △반전진군 △경제침략분쇄 △정치적 내정간섭 반대투쟁을, 반미소 민주와 투쟁에서 △내각제개헌 저지 △민중연대강화 △민중민주운동 탄압분쇄 △지자체 광역의회 선거로 민주연립정부를 수립에 박차를

신규동아리 확장 '겨레사랑' 등 11개

경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회장=조성우·한문4)는 지난4일 확대간부수련대회에서 '겨레사랑, 꽃다지' 등 11개의 신규동아리 가입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9일 동년 집행부회의에서 1차 심의를 거쳐 정식동아리 탈패등 기존 40개에 소낙비, 솔메리알 등 등록 허가해 정식 동아리는 42개로 늘었다.

국사과 교과과정 개편 한의학과는 교수·학생 이견

교수총원과 교과과정개편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경주캠퍼스 국사학과학생회(회장=김승환·국사3)가 지난2일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교수영입 및 교과과정개편을 합의했다. 한편 대사와 실증사학의 위헌성을 안이 한의대교수회에서 지난 3일 부결되어 계속 진봉을 겪고 있다.

새내기맛이 백일장

경주캠퍼스 '동국문화회(회장=황원철·국문2)' 주최로 '새내기맛이 백일장'이 오늘(17일)오전11시부터 정각일대에 펼쳐진다. 올해로 13번째인 이번 백일장을 맡으며 황희정은 신입생들이 직접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문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는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전기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동국문화회의 정신을 밝혔다.

노래극 '0번지' 공연

경주캠퍼스 민중문화운동연합 노래부와 노래부 '안심(희정=송인호·영문3)의 신입생 환영 정기공연 노래극 '0번지'가 지난10일 오후2시, 5시 2차례에 걸쳐 공연됐다.

경주학자투 자치기구화 시급

등투성과물 시행-제도 개선등 원칙고수돼야

'91학년도 1학기 경주캠퍼스 등록금 투쟁이 오늘(17일) '등투성과물'로 투쟁방향결의로 일단락됐다. 지난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등투보고회는 주체적인 중앙동맹위의 홍보부족과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오늘로 연기돼 4·19혁명 계승제에 포함되어 진행된다.

중앙동맹금책정위원회는 14차례 열린 협상에서 스님일생 등록금 관동고지 철폐, 스님일생·생·재학생의 동일인상 적용 스드서관복지 및 재만복지부문 예산 10억반영(서울·경주배분) △18%등록금 인상을 16%로 하향조정 스·결산의 공개(결정)를 원칙으로한다등 12가지의 사항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했다. 또한 합의사항 시행에 있어서 원칙으로 △학내재만 복지향상 △민주적인 학사행정을

사랑의 꽃

사람의 큰

해태리베나 꽃다발 축제

♥용모기간: '91.5.5~'91.5.24
누군가에게 꽃을 주고 싶으세요?
누군가로부터 꽃을 받고 싶으세요?
리베나군이 당신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축제 1

리베나꽃 속에 1매씩 들어있는 꽃그림 스티커를 리베나 라벨이 그려진 스티커를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아름다운 꽃다발을 보내드립니다. (20가지의 사진과 반을 사람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꽃과 사연을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은 읍단위 이상만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축제 2

리베나꽃 속에 1매씩 들어있는 꽃그림 스티커를 5월의 꽃인 장미꽃이 그려진 스티커를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원하는 선물 1봉을 택으로 보내드립니다. (위 선물중 1가지를 골라 우편엽서에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서울·영등포구 양평동5가88 (해태제과) 2층 해태리베나 사은대리점 담당자

●희망소비자 가격: ₩ 500
고소한 아몬드 아삭아삭 - 유지방 8%의 고급 바닐라 아이스크림 새로운 아이스크림 해태 리베나.

“장미꽃 한송이는 ONLY YOU?”

그대를 만난지 3년째
남들은 흔히 커플이라고도 하지만 점차 변변한
고백 한번 들은적 없는 그저 그런 사이...
내게 마음이 없는 걸까?
아니면 생각이 무뎠을까?
그러면 그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했다.
어느날 부스럭거리며 잠바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바로 장미꽃 한송이가 아닌가!
“누가 장미꽃 한송이는 Only You라고 그러길래...”
듣고보니 제법 맛있는 고백이었다.
장미꽃 한송이를 주면 Only You?

실험용 약품 뒷처리 소홀

공대뒤 폐수처리장 악취-소음 심해 환경기사 한명으로 학내 폐수담당 역부족

폐물 방류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과 관련, 본교에서도 공대, 이과대, 농대의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폐수 처리와 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환경요원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대(원종관) 뒤에 위치한 폐수처리장은 공대, 이과대 실험실습생의 하수배수관과 연결된 증류수 성분은 포함된 화학약품의 처리를 맡고 있으나 심한 악취와 소음으로 공대내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스티로폼을 이용한 환경보호벽설치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폐수처리장 환경기사가

21명에서 출장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는 폐수처리장이 중단돼 폐수처리장 관리에 환경보조기사를 두는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염산등 비교적 유해도가 낮은 기초화학약품은 소량 사용하고 있는 농대의 경우, 화학폐수배관이 설치되지 않아 자체정화방식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농대 실험용 폐수처리도 중앙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과대 폐수처리, 석당하수도 처리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농대가 한다면 지적이야. 또 대학이 사회봉사의 역할

을 담당한다고 할때 폐수, 오물등의 처리에 환경요원을 최대한 막을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함은 대학이 수행해야 할 사회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종의 하나임을 폭넓게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간부후보 14명
윤철수군 전체수석**

지난 6일 발표된 제40회 경찰간부후보후보 최종시험에서 본교 윤철수(경행4)군이 전체수석을 차지한 것을 비롯, 경행과 동문14명이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태현(88년졸) △안효상(90년졸) △최성영(90년졸) △이진현(90년졸) △김대일(90년졸) △김주원(91년졸) △이신환(91년졸) △곽영진(91년졸) △이지훈(4) △이호영(4) △이기호(4) △윤철수(4) △조명범(4) △황석현(4) 등 14명이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오는 28일 경찰종합학교에 입교해 1년간 교육을 이수한 후 정위로 임관하게 된다.

반미구국 재소자단식 노정권 퇴진등 주장

‘반미구국전선’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윤남진(경행85)군의 6명의 합소심판장이 지난 9일부터 15일 사이에 각각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구속학생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했다.

공판일정을 보던 김인영(영문 87)양, 윤남진(경행 85)군의 합소심판장판이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서초동 고법4부(303호)에서 열린다.

한편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봉준(안양경행86)의 3명은 지난 5일부터 △국보법안진정제와 양심수전원석방 △반민증적 노태우정권퇴진 △승갑석 전 전대협위원장 공판시 민가협이머니들에 대한 구속규탄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보법철폐-양심수석방 행사 오는 22~26일 문익환목사 강연·서명운동 벌여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1만 동양인 투쟁선교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문익환목사 강연회, 국보법철폐 서명운동등의 행사가 총학생회및 총여학생회 주최로 만해회광장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22일은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학생회관, 도서관, 동극관 앞 등에서 실시하며 대자보 선전도 함께 갖는다.

23일은 ‘국보법철폐와 양심수석방 운동, 고르미 방한 규탄’등을 내용으로 한 문익환목사 강연회가 오후 3시 만해회광장에서 열린다.

또한 24일에는 민주동약이며

오늘 한대서 서총련 발대식 북방정책분쇄·민주대연합구축 결의

‘제4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발대식이 오늘(17일) 오후 2시 한양대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지부별 사전집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발대식은 총학생회장인 장, 개회선언, 김중식(한양대총학생회장) 제5기 전대협위원장 서총련의정와 이철상(서울대 총학생회장)서총련부부의 인사

발, 제3기 서총련 상임위원소 개및 이임사, 문익환목사 축사, 총노선선고, 학우부 발족선언,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 된다.

이날 총노선 선포에서는 북방정책 분쇄, 민주대연합구축, 지자체 대응방안, 학원담판분쇄 등 상반기 총노선을 결의하게 된다.

학생회관 동아리방서 화재 재산피해 5백여만원...소화시설 재점검시급

석유난로파열로 인해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경 동아리 동국문화회실(학생회관 4층)에 화재가 발생해 캐비닛, 책, 소파 등이 불에 타 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동국문화회 소속학생 2명이 석유난로를 켜고 잠자던중 난로가 과열, 열의 책과 의자에 옮겨붙으며 일어났다. 불이 나자, 이날 학생회관에서 잠자던 학생과 수위 아저씨가 각층에 배치된 6개의 소화기로 불씨를 잡았고 중부소방서 소방차 11대가 동원돼 소화작업을 펴 불길은 다른 동아리방으로 번지지 않는었다.

그러나 동국문화회 전경위의

전선케이블이 타 방송국 전원이 끊겨 방송이 일주일간 중단됐으며, 화재로 발생한 탄산가스에 DUCA 컴퓨터 6대, 프린터가 2대가 고장났으며 영어회화연구회 벽에 글이 가고 전원이 끊기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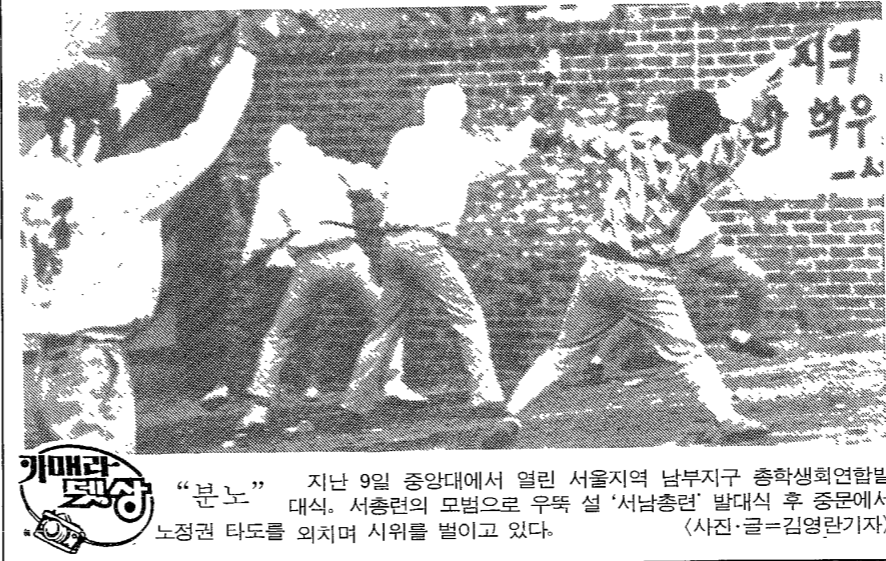
한편 이날 학생회관 화재피해 복구와 대책마련을 위한 학과·학생 협상이 지난 16일까지 학생회, 동연, 동국문화회가 참석한 가운데 3차례 열렸으나 화재방지를 위한 야간근무 강화 등 학생회관 관리 철저, 동국문화회 화재피해 보수 등은 합의되고 학생측이 요구한 소화기와 난방시설 보수, DUCA 컴

퓨터 수리비 지급은 학과·학생이 입장을 달리해 앞으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연, 동국문화회가 지적한 소화·난방시설 개선문제와는 달리 이번 화재사건은 학생회관을 사용하는 동아리인의 실수로 발생했던 만큼, 이 전부터 제기돼온 학생들의 학생회관 사용에 큰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동아리 아리랑 소속 노영선(국문2)군은 “그동안 술에 취해 동아리방에서 자거나 동아리방을 밤에 잠자는 곳으로 착각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강한 동아리 모습을 되찾으면 싶다”고 당부했다.

이날 화재사건은 DUCA의 피해보상, 동국문화회 복구등 시급한 대책마련과 함께 학생회관 교내 건물에 사용하는 학생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소화시설의 철저한 관리역시 학과·학생의 과제로 지적됐다.



“분노” 지난 9일 중앙대에서 열린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연합발대식. 서총련의 모범으로 우뚝 설 ‘서남총련’ 발대식 후 중문에서 노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학원 등록금 차등 반발 실질적인 장학금 확충요구

제7대 대학원학생회는 학부생과의 등록금 차등징수에 반발 실질적 장학제도 마련 2% 환율 △학술진흥비 확충등을 요구하며 이제(16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는 지난 2일 조희영 기초정책과 있었던 대학원생 요구사항 협의도중 대학원생 등록금이 학부생 인상률 16%보다 2%인 상한 것을 확인, 지난 4일과 10일 각각 비상대의원회를 갖고 △학술진흥비의 제도적 보장 △실질적 장학제도 실시 △학점등록제 실시 △대학원 발진방안 마련 △2%환율조치를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학원측은 지난 2일부터 3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대학원생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기에는 학교재정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학술진흥비는 강화·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이제(16일) 오후 5시 최종토론회를 했다.

한편 현재 일반대학원에 대한 학교의 연구재정지원은 동일한 질 발행지원비, 조교·대학

원학생회간부 장학금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여서 대학원연구부토론회를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한 요구되고있다.

서울·경주 춘계총합은 오는 2일부터 5일사이 서울·경주캠퍼스 춘계총합이 다음달 2일부터 5일사이에 충북제원군 일대와 경북 영일군 일대에서 각각 실시된다.

서울캠퍼스 춘계총합은 오는 21일 농민회 상평과와, 근로내 용망 분반별 활동내역 파악을 위한 제원군 담사를 통해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충북 제원군 일원에서 실시한다.

또한 경주캠퍼스 춘계총합은 오는(17일) 탐정회의를 갖고 다음달 2일 농민회참여대원 전체 학습을 통해 의료보험, 골프장 건설, 수임개방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모내기, 마을정소, 농촌현실 계몽등의 근로대상 등으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경북영일군 일원에서 실시한다.

서울 총대 출범식 거행 총학 회칙 개정안 의결 확정

제23대 총대의원회 출범식 및 정기총회가 ‘학우들’을 학생회로 학생회를 학우들에게라는 기치아래 지난 11일 오후 5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52개학과 과 34개학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출범식과 정기총회로 나눠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 의결 △1/4분기 감사계회 △제23대 총대의원회 사업계획안 등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의원회 사업소개, 중앙위원 및 집행부 소개가 있었으며, 각급학생회 및 특별기구의 대표로 23대 부총학생회장 신원철(경제 4)군이 인사말을 했다.

또한 총대의장 김득연(국문 4)군은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제대의원은 더이상 단순 실무자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학생회의 주체로 나선다”를 당부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4일 총대 중앙위원 및 집행부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에 대한 기초발제와 토론이 진행후 표결에 부처져 28개학과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 찬성 18 반대 8 무효·기권 1표씩으로 가결 확정됐다.

한편 이날 김의장은 91년 총

대의원회의 중점사업은 ‘단대별 대의원회의 활성화’라고 제시하고 대의원들의 학생회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대회장 보궐선거
17·18일 양일간 투표**

‘혁명의 투혼으로 전진하는 그대 청년 공학도여! 노획동맹의 깃발 움켜잡고 격전의 91년을 선봉하라’는 기치아래 제 13대 공과대학학생회에 단독 후보인 이광진(전기공 3)군에 대한 찬반투표가 오늘(17일)과 내일(18일) 양일간 원종관 앞에서 실시된다.

지난 16일 유세에서 이군은 공약사항으로 △쉬워진구조조 운영위원회를 강화하는 속에 민주적 학생회수립 △특수시설등 공대발전계획안 제시 △학생투쟁위원회 건설 등을 내세웠다.

본사사령

◇임기자
▲양승희(문과대 철학2과)
(이상 3월 30일자)

제9회 학생논문상 심사결과 발표

본사에서 본지 창간 41주년 및 4·19 31주년을 기념하며 현상모집한 ‘제9회 학생 논문상’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입상논문: 해당자 없음
1991년 4월 15일
동대신문사

동화문제(?)
○“우리학교에서 비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동화문제(?)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난해부터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면 전원이 잦았던 우리학교가 지난 2·3일 양일간 24시간이 넘도록 전원이 돼 동학의 가족들을 외하게 했다고.
전기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변압기는 10년전 기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혹시 ‘서당적 시설에서 현대적 교육을 받는 것’이나 아닌지 스스로 착각까지 들게해...
이에 본 회전문대자 “환경에 지배받는 학교는 아무 유익에 없을 걸요(?)”
지본의 논리
○코르바초프가 제주도

를 선물(?)하기 위해 방한한다는 유비동진.
조국통일의 결집들로 인식되어온 ‘남한만의 유엔단독 가입’을 소원정부가 지지할 것임이 지난 10일 알려졌다. 더불어 북한의 핵시설시찰을 요구하는 미국의음모에 맞서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주장해온 북한을 배신, “북한은 핵사찰을 받아야한다”며 자본의

高立化(?)될 수 밖에요”
불의나라
○“지난 8일 새벽, 동국문화회 주최 행진기간 후련 ‘불의나라 불의나라’가 학생회관 4층에서 공연됐는데, 알아본즉 동국문화회에서 잠자던 학생이 커튼을 난로가 과열, 화재가 발생해 동국문화회 동아리실은 온통 불의

북한에 핵증정 망언...법치국가 국민의 도리(?)

논리에 철저히 지배받는 정부(?)의 망언을 짚을 했다.
이에 회전문대자 “소련이 달려에 의해 계정신을 잃어가고 있으나, 북한이 점점 더 사회주의 표방국가로서

컨택트렌즈 단백질제거와 세척을 동시에 - 간편한 SPC액

컨택트렌즈 관리는 정확하게 - SPC CLEAN 캠페인

간편한 SPC액 - 렌즈관리도 올바르게 하고, 무집한 상품도 받으세요.

응용기간: '91.4.21 ~ 5.10 (20일간)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SPC액이 발매1주년기념 SPC CLEAN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SPC CLEAN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무집한 상품을 받으세요.

행사1

SPC액 포장의 점심부분을 오려 염사로 보내주세요 500분을 수집하여 SPC액 1방울을 드립니다.

500

행사2

SPC Clean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렌즈의 점심을 적어 보내주시면 점심부를 수집하여 무집한 상품을 드립니다.

- SPC액 1방울 (1명) 교환유리렌즈 (인생1인 3000)
- 1등 (5명) 테니스라켓 (유니온 101 275)
- 3등 (10명) 교환유리 렌즈 (비타포스)
- 행운상 (각 도에 1명) 하이파 콘택트렌즈 교환권

컨택트렌즈 관리는 올바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SPC는 1일 1회 세척으로 렌즈와 외 세척을 동시에 해결해 주므로 렌즈관리가 간편합니다.

단백질제거와 세척을 동시에 해결하는 SPC액으로 컨택트렌즈 트러블을 예방하세요.

컨택트렌즈 관리는 정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컨택트렌즈 세척제 SPC액 / 1일 1회 세척으로 단백질제거와 세척을 동시에 해결해 주므로 렌즈관리가 간편합니다.

문의전화 841-1212, 중외제약PM실

SPC 액

중외제약

● 권장소비자가격: 1방울 5,500원 (2개월분)

*행사1, 행사2에 모두 참여할 경우 응모양식을 각각 나누어 보내주세요

“살아있는 소리 전수할 터”



풍물패 '터울림'

정, 풍채, 장고, 북 등 우리 악기의 어우러진 소리를 듣고 흥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풍물은 예로부터 농업사회인 우리나라는 '풍악이', '두레'에서도 나타나듯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착되어 있었다. 함께하면서 일을 풀어나갔고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흥을 느끼고 힘을 내게 하는 노래와 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즉 놀이를 위한 놀이가 아니라 함께 하는 놀이가 바로 풍물의 시작이었으며 민중문화의 꽃으로 자리잡아왔다. 지난 84년 10월 풍물전문패로는 최초로 만들어져 민중문화를 보급해 온 풍물패 '터울림' (대표=정순남)을 찾았다.

터울림은 풍물이 어느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일하는 곳에,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지극히 대학살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풍물강습을 통해 직접적 대중

풍물고유의 전문성 살리려는 시도 민요, 춤, 풍물, 판굿 등 과정별 전수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노동조합 및 농촌에서 풍물패 건설작업을 위한 '두레' 활동을 해왔다. 풍물강습활동과 더불어 '앞으로 앞으로'라는 정기공연을 비롯한 다른 단체와 합동공연을 가져왔고 시기별 기념공연을 갖기도 한다. 풍물강습은 메달 실시하는데 초급과정은 전라도 계통의 기본가락과 민요를, 중급과정은 이를 바탕으로 판굿을 가르치며, 전반적으로 기본교육을 통해 민중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문화에 대해 터울림의 한 회원 박희정씨는 "문화는 민중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민중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흥을 들으며,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풍물이 참다운 문화의 하나임을 생각하게 한다.

풍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선전공연이나, 무형문화재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문화재로서 향상된 창작활동을 하며 발표공연, 강습 등을 계속하겠다는 민중문화 보급의 의지가 첫소리보다 강한 전술감을 받는다.

투고를 환영합니다.

시, 소설, 수필 등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267-8577 (직통)
2194 (구내) (문화부)

새로운 동아리 얼마나 늘었나

(서울캠퍼스)

동국대학교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미지의 탐험을 통해 인간관계에 도전함으로써 진취적이고 객관적인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중의학연구소
다수대중의 복리에 기여하는 전통 민중의학정신을 되살아보고 그 독특한 사회의로사학과 탁월한 효과를 체현할 수 있는 의술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중미학연구소
올바른 예술 사상에 관점정립과 대중의 올바른 미적감각을 심어주며 본교 문예운동에 걸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손짓사랑회
정각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 및 연구, 기획을 추진하며 정각장애인의 인적인 수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홍보와 올바른 인식고양과 함께 복지사의 건설에 대한 노력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주캠퍼스)

겨레사랑 (회장=윤정인·국문4) 민족문제 연구모임으로 제반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달을 목적으로 연구·토론을 위주로

올해들어 새로 등록한 동아리 소개를 통해 동아리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신규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들을 심는다. 아울러 경주캠퍼스는 지난 14일 신규동아리 등록이 확정되었고 서울캠퍼스는 아직 동원의 신규가입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신규가입등록원을 제출한 동아리를 소개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하는 학술동아리. 이념분과에 소속, 4월에는 4·3학생 세미나와 4·19 공개토론회를 5월에는 도서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꽃다지 (회장=오유정·한문3) 여성문제 연구모임으로 불평등한 여성의 삶과 노동의 소외된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올바른 여성상, 남성상 정립을 도모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알리고 이화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념분과에 소속해 있음.

메달 학술모임을 개최하여 자료를 통한 여성문제 제시, 탁아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동국수집합대 (회장=최국현·한외1)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 SKIN-SCUBA를 통하여 신체단련과 인격향상에 힘쓰며 진취적 자세를 통해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분과에 소속.

SKIN-SCUBA의 이론강의, 실습, 제주도·구룡포원정을 계획하고 있다.

돌핀스 농구반 (회장=이은세·전신2)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단련과 친선도모를 꾀하고 농구를 통한 화합정신과 스포츠맨 스피릿을 배우는 것이 목적. 체육분과에 소속.

영대총장기념 농구대회참가, 하계훈련 등 각종 농구대회에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비나레스 합창단 (회장=허혜진·불외4) 동국대학교 건학이념 및 교훈을 기초로한 합창단으로서 찬불가보급에 힘쓰며 자체적 음악활동 및 단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합창단. 교양분과에 소속.

부치님오신날 행사참가와 정기발표회를 준비한다.

소리물결 (회장=소홍성·외예2) 소리의 삶이 이야기, 은폐되고 왜곡되어 전해지는 현실들을 바로 잡고 이를 형성하여 연극으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념분과에 소속.

4월의 Work Shop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조판간 정기공연을 가질 계획.

AFKN연구회 (회장=김병은·영문4) AFKN연구를 통해 절실한 영어청취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올바른 국제정세의 이해력향상과 이를 통한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 학술분과에 소속해 있다.

공개특강과 영어청취력 경시대회, NEWS전시회를 준비.

어울노리 (회장=이재욱·외학2) 풍물을 배우고 그 정신을 이해하며 이를 위한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참된 대학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풍물패로 이념분과에 소속.

풍물강습회와 대·경·외·열 놀이패로인 참가, 하계전수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참사랑 (회장=권진홍·회계2) 나보다 불우한 환경의 사람을 찾아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장애인복지인 메리트를 방문하여 진정한 인간애를 배움의 목적으로 한다. 봉사분과에 소속해 있음.

메이리 방과후 각종 바자회, 수화교실개최, 모금행사를 준비.

하늘·땅의 사람들 (회장=최현철·미술3)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중의 하나인 상업적 양락문화와 배척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올바른 민중문화보급을 위한 그룹이다. 이념분과에 소속해 있다.

민중문화원의 각종 교재·외 자로집필간과 설계그림 전시회, 각종 그룹패와 연대를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이스카웃 (회장=송희성·행정2) 지성인으로서 스카우트이념에 입각하여 지도자로서의 인격함양과 능력배양, 봉사활동을 통하여 대인간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분과에 소속.

다불어 국제적 활동을 통해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보이스카웃으로서 기본훈련과 야영, 연구지발간, 세계 젠비리대회참가등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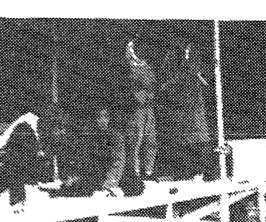
문화칼럼

우리마당 문화학교

‘민중문화교실’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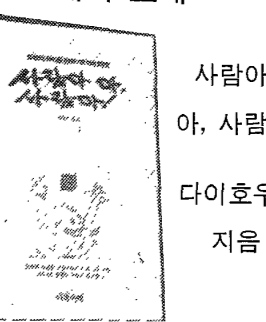
- 일시
- 1. 풍물교실: 4월26일~5월26일 매 주 화, 금요일 오후7시30분
- 2. 탈춤교실: 5월1일~26일 매 주 수, 금요일 오후7시30분
- 3. 대금교실: 4월26일~5월26일 매 주 화, 금요일 오후7시30분
- 4. 단소교실: 4월29일~5월26일 매 주 월, 목요일 오후7시30분
- 장소: 우리마당 연습실 (신촌역근처)
- 문의: 313-7169
- 신청: 4월25일까지 직접 방문신청 (신청착마감)

연우무대 '한시연대기' 공연



- 일시: 5월1일~6월30일 매일 오후4시 30분, 7시30분 (월, 화요일 휴관)
- 장소: 연우소극장 (혜화동)
- 문의: 744-7090, 744-5701

새책 소개



사람아, 아, 사람아
다이호유임 지음

중국의 현역 여성작가 다이호유임의 장편소설로, 1957년 이래의 반우파투쟁과 문화혁명이 당대 지식인들의 정신에 일어난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며 중국의 분부와 노력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단우와 노력을 휴머니즘의 특색에서 진지하게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계속되는 혁명

“이렇듯 민족통일을 방해하려는 당시 정권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집회 결사의 자유, 이념·사상의 자유로 부터 출발해 조국통일의 신념으로 이어졌다. ▲4월혁명 41일을 맞는 오는19일 코르비츠프 소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 경제협력력을 확대해 자국의 경제난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란 한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남한의 유엔다국 가입을 가속화해 북한의 고립화를 가져올 미국과 대우권정의 북방정책을 도모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아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조국통일을 완수하려는 헌법전문에

(浩)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환경경시인이 되어, 맑은 공기의 수호인이 됩시다! 나무들은 수천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지구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입니다. 나무가 많아 공기도 맑고 깨끗해집니다. 유한킴벌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가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산림지원 조성금으로 10여억원을 산림조합 중앙회에 기탁하여 조림, 육림사업 및 산간계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57만 그루를 심고 가꾸어 산림지원 조성금 2억여원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지원합니다.
- 자녀는 청소년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나무관찰대회, 여름나무 캠프, 푸른꿈나무 글짓기대회를 펼쳐 왔습니다.
- 4월5일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매년 마다 개최, 나무 사랑을 널리 일깨워 주시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어합니다